

한인뉴스

2015

4

VOL. 226

haninnewsinni@gmail.com

LOVE FOREVER
GO KOREA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Samsung GALAXY Note 3 + Gear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www.samsung.com/id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인천	KE628	2205	0705 ⁺¹	매일
	KE626	0750	1655	월,목,일
인천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KE625	1925	0035 ⁺¹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OTTE SHOPPING AVENUE

당신만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와
최선의 가격으로 모십니다

새로운 매장에서 새로운 쇼핑을 경험하세요



GRAMEDIA | 2F

그라메디아 서점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고 광범위한 체인 스토어입니다. 100여개가 넘는 서점이 수마트라에서부터 파푸아까지 위치해 있으며 그라메디아는 콤파스 그라메디아 그룹의 선봉장으로서 지식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leur n Fleur | 1F

Fleur n Fleur의 목표는 건강한 식재료로 최고급 퀄리티의 빵과 패스트리를 만들어내는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맛있는 빵을 신선하게 구워낸다" 라는 모토아래 방부제 무첨가는 물론 영양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ANCING CRAB | 4F

컨트리 스타일의 케이준 해산물 모듬요리와 특별한 크레올레 요리를 즐길수 있는 댄싱 크랩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롯데 쇼핑 에비뉴 4F에 위치한 댄싱 크랩은 생동감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최고의 음식점 댄싱 크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제15회 아시아여자 핸드볼대회 결승전(3월23일)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차례.....6

이모저모 한인사회.....8

논설위원 칼럼/ 호혜주의 <김문환 논설위원>
제15회 여자핸드볼 아시아 선수권대회
2015년 BEKASI 지역 경제 설명회 개최
외국인력 고용허가 규제관련 인니노동부와의 한
국기업인 간담회
한-인도네시아 고용투자 확대 포럼
어바인시장 초청 특별강연
자충련, 한인회에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기증

이순신장군의 품계를 살펴보면
승진과 강등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장군의 젊은 날을 알 수 있습니다.
강직한 아랫사람을 다뤄야했던 상관들은
그가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가끔은 그런 이순신장군의 인사고과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조직이, 단체가, 나라가 운영되는 흐름이
언제든, 어디든 있으리라...

새로운 질서를 잡으라
인도네시아도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우며
구성원으로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흐릿할수록 선명함을 찾듯이,
이곳의 상황들에 편치 않은 마음으로
딱 막힌 큰 길을 바라봅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contents

2015. 4. 통권 226 호

2015
4

이 달의 읽을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인회 방문 OKTA 차세대협의회 상반기 정기총회 KOICA, 2015년 석사연수 워크숍 2015 아라테 테니스 대회 대조영함 지휘부 초청 환영만찬 사진읽기/ 순간&영원 <박정자> JIKS 소식 JEPARA 한인회 소식 한류축제	Jalan-Jalan Jakarta / Sunda Kelapa역사<사공경>.....40 문화탐방기 <최우호>.....44 인터넷피아 <범상규>.....48 법률해설/ 종교법<이승민>.....54 내 마음의 뜰 / 사람 꽃 <시:김은숙/그림:이태복>.....59 제5회 국제사생대회.....60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는 이번 호에 쉽니다. 화 도 소.....62 생활정보
2015 3월 경제브리핑.....29	
엄마, 베리농장에 가자!<민수린>.....34	
지상갤러리/ 꽃 핀 아몬드 나무<김선옥>,.....36	
4월의 행복에세이 <서미숙>.....38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논설위원 칼럼>

호혜주의(互惠主義)

김문환/논설위원



무역거래 유형 중 하나인 ‘호혜무역’ 이라는 용어는 교과서에서 접해왔던 터이다. 당사국 사이에 특별한 협정을 맺어 서로 관세를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무역형태이지만, 요즘은 경제관계가 돈독한 국가들 사이에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잠정적인 무역협정이나 지급협정을 맺어 무역의 확대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 인도네시아 언론매체에는 무역에 국한하지 않고 ‘호혜(Reciprocity)’ 라는 용어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등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수년간 이 용어가 자주 쓰이기 시작한 분야는 자원개발과 금융업종이다. 1960년대 말부터 투자를 시작한 프리포트, 뉴몬트, 토탈 등 서구 자원개발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연장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상호주의 원칙이 거론되었으나 그 근거에는 자원민족주의 개념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12년 11월 마흐훗 현재소장이 퇴임직전 “국토, 수자원 그리고 천연자원은 국가가 통제하여야 한다” 는 헌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내린 위헌판결로 의도가 분명해졌다.

거래금액이 70억불을 상회하여 인도네시아 인수합병 사례로는 최대규모였던 싱가포르 DBS은행의 다나몬은행 인수허가가 오랫동안 진척을 보이지 않자 2013년 6월 인수자 측이 중도에 포기를 선언한 이유도 바로 이 호혜원칙을 마지노선

으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의 의지를 간파하였기 때문이었다. 중앙은행(BI)과 재무부의 감독기능을 떼어내어 2013년 초 출범한 금융감독청(OJK)은 ‘호혜원칙’ 을 부동의 원칙으로 삼아 외국 금융기관의 인허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상이 타결되면, 국책은행인 BNI은행은 한국, 만다리은행은 말레이시아에 현지법인을 세울 계획이며, 반대급부로 한국의 신한은행 등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호혜원칙의 혜택 을 받게 된다. 최근 수년간 금융사의 결산서를 보면 단연 은행업종이 최고의 수익성을 누리고 있으며,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전망되는 높은 성장잠재력이 더하여 외국은행들은 앞다투어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누적되는 무역수지 적자와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통화 가치가 하락하자, 그 대책의 일환으로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해, 직년 연말부터 준비작업 중이던 외국인 비자면제정책을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4개국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국가를 포함한 3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가깝고도 먼’ 이웃인 호주는 제외되고 있다. 마약사범 처리문제로 악연을 이어온 전력도 있지만, 어느 국가에나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호주의 ‘보편적 비자정책’ 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무비자혜택이 불요불급한 유럽의 국가들도 호혜원칙을 강요당하며 순순히 따라갈 리는 없다.



최근 이민법과 관련된 외국인 인력 정책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외국인 취업자의 연령제한, 언어 자격심사 등의 새로운 조건이 등장하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받아 서류상의 불일치를 들어 신체적인 억류를 당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하늬 다끼리 노동이주부장은 3월14일 남부깎리만판주 반자르마신 지역의 석탄업체들을 시찰하며 특정업종에 대해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가 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어학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를 놓고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상호주의 원칙을 주장한다면 말레이시아에 공식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50만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인구 5백5십만명에 불과한 싱가포르엔 백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나, 2억 4천만명의 인도네시아엔 단지 6만 5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을 뿐이다. 자원민족주의의 불씨를 지피는 현재판결을 내리고 부통령후보군에까지 올랐던 마흐훗 전 현재소장과 외국인 취업정책에 배타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노동이주부장은 보수 이슬람단체인 NU에 뿌리를 둔 PKB당 당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어학자격 조건에 대해 부질없는 조건이라며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3월 24일 부통령을 비롯한 일부 각료

들이 공개적으로 동조하는가 하면, 외국인 무비자 정책 확대가 호혜원칙을 명시한 기존 ‘이민법 제 6호/2011년’ 에 저촉된다는 반대목소리에 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을 제정하여서라도 4월부터 이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시라도 달러유입이 절실한 상황임을 반증하고 있다.

3월 중순 재난관련 유엔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유습 깔라 부통령이 도요다 등 내노라하는 일본의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만난 지 바로 열흘 후 연이어 조꼬위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있었다. 조꼬위 대통령은 방문대상국으로 일본과 중국에 국한하여 인프라 투자유치를 비롯한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도 같은 맥락이었다. 우환제철의 50억불 일관제철소 건설, 차이나 민생 투자사의 50억불 공업단지 조성 등의 큰 선물을 안고 돌아왔다. 돈을 쥐고 있는 투자국의 위세도 만만치 않아,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던 주재 일본대사의 고압적인 자세가 구설수에 오를 정도로 인도네시아의 투자구결은 절박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스마트폰의 투자를 채

근하면서도 40% 이상의 국산화를 요구하여 이해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 관련업계의 불평을 사는 이 율배반적인 정책도 서슴치 않고 있다.

최근 정치, 경제적으로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보를 보면,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더 많은 투자를 던지는 국가들에게 매달리는 실리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정, 부통령이 열흘 간격으로 연달아 일본을 방문하여 똑 같은 주제인 인프라투자를 부르짖고, 경제강대국들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화답하는 판국을 보노라면, 2년 전 수교 4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우리는 형제다.’ 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현지인들과 손을 맞잡았던 우리들의 파티는 경제대국의 물량공세 앞에 퇴색되어 가는 느낌이 든다. 지금 자카르타 도심 의전도로 지하를 파고 드는 그들은 누구이며, 수십억불 짜리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건설자금을 대는 큰 손은 누구인가? 그런데 이렇게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숨통이 터질듯한 상황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에 열중하는가? 한인사회에 긍지를 심어주며 조업에 들어간 지 1년밖에 안된 P 제철사의 손익계산서만 들여다보며 성과를 단정한다면 이는 성급한 판단이며,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원사업이 당장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나무뿌리를 걷어차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대표적인 석탄광업 성공사례인 K사는 1980년대 초에 깔리만만에 첫발을 디디, 10년 후인 1990년대에 들어서야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또 다른 10년을 인고하지 않았던가? ‘5공 청문회’ 당시, 야당의 저격수 S의원의 입을 통해 사기꾼이니, 구속이니 하며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최초의 해외유전개발사업인 ‘서부마두라 유전’ 도 20년 만에야 결실을 보아 명예를 회복하지 않았던가?



‘제15회 여자 핸드볼 아시아선수권대회’ 환영만찬



여자 핸드볼 한국국가대표팀(감독 임영철)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15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 한다

한인회는 13일 저녁 자카르타에 위치한 아랑 22에서 14일 첫 경기를 펼치는 선수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환영 만찬을 베풀고 선전을 기원했다.

신기엽 한인회 회장은 “당연히 우리가 우승할 것이다. 우리들은 즐길 준비가 되어있다. 같이 즐기며 게임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그간 갖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을 우리 선수들에게 당부하였다.

김진수 단장은 “선수단 보다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교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오만 교민

을 이끄는 한인회가 진정한 국가 대표들이다. 남의 나라가 아닌 집안에서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여 꼭 우승 하겠다”고 파이팅을 외치며 선수단 사인볼을 한인회에 기증하였다.

만찬을 통하여 우리선수들은 조국의 소중함과 나 개인의 선수가 아니라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핸드볼 선수임을 자부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이란, 인도가 A조에 편성됐고 B조에는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홍콩이 한데 묶였다.

조별리그에 이어 각 조 상위 2개 나라가 준결승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3월20일, KMK GROUP(회장 송창근)은 운동화를 선물하며 한국대표선수단을 격려했다.

한국 여자핸드볼 아시아선수권대회 2회 연속 정상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아선수권 마지막 날 결승에서 일본을 36-22로 대파하고 우승했다.

대표팀은 이번 우승으로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우승했다. 2010년 카자흐스탄 대회에서는 홈팀 텃세에 밀려 준우승했다. 대표팀은 1987년부터 시작해 15회째를 맞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12번째 우승을 따냈다.

조별리그에서도 일본을 32-20으로 완파한 한국은 결승에서도 36-22, 14골 차 대승을 거두며 아시아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주장 유현지는 “선희 언니 등 주전 선수들 여럿이 부상으로 빠진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팀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며 “내가 못하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큰 점수 차로 우승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계선수권 출전권은 우승팀 한국, 준 우승팀 일본, 3위 중국이 가져갔다.

대표팀은 올해 이번 아시아선수권과 10월 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 12월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치러야 한다.

10월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 지역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하면 2016년 올림픽 본선 진출이 확정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12월 세계선수권 또는 2016년 3월 별도의 예선 대회를 거쳐야 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있다.



2015년도 버카시지역 경제설명회 개최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대사 조태영)은 버카시지역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설명회를 3.18(수) 버카시 LG전자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2014년 10월, 조코위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조세, 관세 등 경제분야별로 새로운 정책들이 다수 시행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이 수시로 발표되는 제도와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우리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순회 경제설명회의 일환으로 버카시지역에서 제일 먼저 개최하게 되었다.

금번 설명회에서 대사관의 임현철 관세관은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보세구역 관리강화 등 관세정책 동향을, 김용운 고용노동관은 인도네시아정부의 노동법 개정, 최저임금제도 개선 추진 등 노동개혁 동향과 외국인력 고용허가 규제 현황 및 대응방안을, 최종환 국세관은 최근 2015년도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세무조사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영 지원을 위해 세무, 노동, 관세, 투자 등 각 분야의 최신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한편, 이번과 같은 찾아가는 지역순회 경제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사제공:주인도네시아대사관)



외국인력 고용허가 규제 관련 인니 노동부와 한국기업인 간담회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대사 조태영)은 최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과 재인니 동포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인도네시아정부의 외국인력 고용허가 규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우리기업인 간담회를 3월 24일(화)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우리측에서는 대사관 고용노동관,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KOCHAM) 송창근 회장, 신발산업협회(KOFA) 신만기 회장, 봉제협의회(KOGA) 김종립 회장 등 기업인단체 회장단과 사무국요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노동부측에서는 Reyna Usman 인력배치총국장, Hery Sudarmanto 외국인력통제국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우리측은 한국기업들이 현지인력과 함께 상생협력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업계의 인력운용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노동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최근 노동부가 입안한 신발업종 직위

별 고용허가에 관한 장관결정(KEPMEN NO 15 Tahun 2015)이 시행되는데 따른 우려되는 애로를 전달하고 해석상 모호한 조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은 인도네시아 노동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최근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법령 해석상 의문시 되는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을 청취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향후 우리 기업인들이 노동부측과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꾸준히 접촉하고 우리기업인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하는 등 우리 기업과 동포사회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기사제공:주인도네시아대사관)



한-인도네시아 고용·투자 확대 포럼

재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송창근, 이하 코참)는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가 신정부 정책당국자를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직업 창출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5 Korean business Dialogue’ 를 개최했다.

12일(목),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 송창근 코참 회장, 하늬프 다끼리 인력부 장관, 하리야디 수감다니 Apindo 회장, 한국 기업인과 인도네시아 정부 관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코참과 APPINDO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 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송창근 코참 회장과 하리야디 수감다니 APINDO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태영 한국대사의 축사에 이어 리잘 아판디 루크만 경제 조정부 차관, 파라 인드라아니 BKPM 부청장, 하늬프 다끼리 노동부 장관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송창근 코참 회장은 “2019년까지 15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며 “외국인 근로자 규제, 미흡한 투자 인센티브 등 한

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를 위한 애로사항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 고 건의했다.

파라 인드리아니 BKPM (인도네시아의 투자조정청) 부청장은 “관련 당국이 투자와 고용 창출 규모가 크고 수출주도형 기업을 대상으로 면세기간 (tax holiday) 과 조세특별조치 (tax allowance)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 후, 인도네시아 정책담당자와 코참 관계자들의 ‘다이얼로그’ 가 진행됐다. 패널로는 파라 인드리아니 BKPM 부청장, 해리 수디르만토 노동부 외국인력 국장, 바비 시아기안 경조부 소속 아시안 경제 협력 부국장, 헤루 빠부디 관세청 국장, 하리잔또 APINDO 부회장과 이강현 코참 부회장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였다.



미국 민주당 소속 정치인 강석희, 전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Irvine)시장 초청 특별강연

16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코잠, 회장 송창근)는 자카르타 코린도그룹 대회의실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미국 민주당 소속 정치인 강석희, 전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Irvine)시장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1977년 고려대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스물셋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늦깎이 이민을 한 그는 전자제품 유통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직, 성실함과 서비스 정신을 인정받으며 승진을 거듭하다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목격하고 정계에 진출했다.

한미장학재단 이사과 회장, 한인사회 옹호단체인 한미연합회 오렌지카운티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한미민주당협회를 창당하는 등 정치활동을 펼치다가 2004년과 2006년 어바인 시의원에 출마

해 당선됐다. 2008년에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직선 시장에 올랐으며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도시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도시인 어바인에서 이민 1세인 그가 시장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한인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며, 오렌지카운티 내 첫 비백인계 시장이어서 ‘어바인의 오바마’로 불리기도 한다.

정치인은 신용을 파는 사업가라는 신념으로 정치에 임했다는 강 전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미국은 L.A 폭동이라는 비민주적인 사건에 대해 한인사회에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 결국 한인사회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실감했다”며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도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한인 2세들의 정계 진출을 도울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차세대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길의 GPS(Globalization, Personalization, Specialization)를 꼭 기억하길 바란다.”며 “If I can do it, You can do it better!”라고 말하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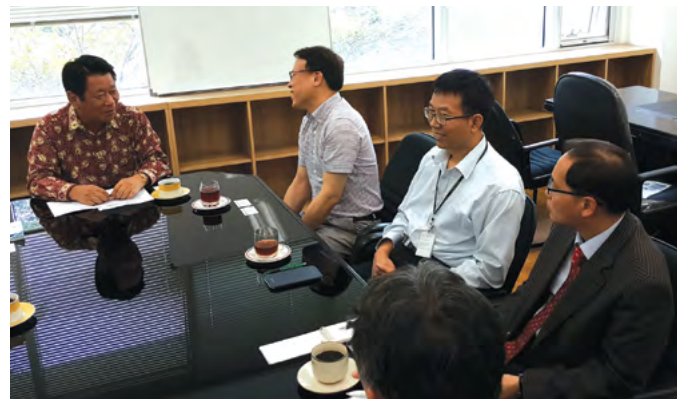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중앙선거관리 위원, 한인회 방문

재외공관 선거환경 실태파악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김재원과장을 비롯 선관위 소속 2명과 외교부, 행자부 각각 1명이 3월 30일 한인회를 방문하였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관리했던 대사관 이하 재외선거위원회 위원들, 한인동포들의 경험담과 애로사항을 듣고 지난 선거를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신기엽한인회장은 “자카르타의 교통문제와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 지정한 한 곳에서 행해지는 투표는 바쁜 동포들에게 시간할애의 어려움이 있다. 공관을 2회 방문해야하는 신고 및 신청의 번거로움도 해소해야 할 문제이다. 투표방법의 다각화, 투표소의 추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을 높여서 낭비가 없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 김재원과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높은 투표 참여율이 우선되어야한다. 투표하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개선하여 투표참여 의사가 실질적인 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며 내년 국회의원선거(2016년 3월 30일부터 5일간 실시)의 신청이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데,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부탁하였다.

자총련 인도네시아지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한인회에 기증

나라 사랑을 구호로 다양한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현상범회장은 배연자고문, 송재선고문, 조용준고문과 함께 3월 26일 한인회(회장 신기엽)를 방문, 대한민국 근현대사 역사책을 기증하였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1,2,3,4 (세트)는 격동의 역사 현장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을 정밀하게 다룬 시리즈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청소년을 비롯 모든 세대에 걸쳐 자칫 소홀하기 쉬운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역사책 선정에 신중

을 기한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에서 선정, 일괄 구입하여 전지역의 지부로 보내온 것이다.

이자리에서 현상범회장은 “앞으로 자총련 인도네시아 지부에서는 이 역사책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일제 강점기와 6.25(1권, 4권)를 중심으로한 근현대사 퀴즈대회(가칭 역사 골든벨)를 9월중 개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국가안보태세를 튼튼히 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며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국민운동단체이다.



KOICA, 2015년 석사연수 워크숍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지난 3월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사리판 퍼시픽 호텔에서 KOICA의 석사과정 연수 참여 방법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에는 인니 국가사무처 (SETNEG) Yanti 남남협력 부국장을 비롯하여, 인니 정부 각 부처의 관계공무원, KOICA 석사연수과정 동창회(KOSA)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STEP: Start To Encourage the potential, Sharing Knowledge, Experience and Culture’ 라는 주제로, 인니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KOICA의 2015년 석사과정 연수 프로그램과 지원 방법 등을 소개하고 귀국연수생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KOICA 석사연수과정에 대한 현지 인지도 확대와 연수효과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영인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부소장은 환영사에서 KOICA의 석사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인니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하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이어 연수 동창생들과 KOICA 석사연수과정 및 2015년 전형일정을 다양하게 공유하고, 국가사무처에서는 국제장학제도 신청절차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석사과정 귀국연수생들이 공부한 각 대학교의 과정별 경험과 습득한 지식을 공유하는 발표와

연수 참가경험자 토크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KOICA 석사과정 연수 프로그램은 인니정부의 관심 분야인 전자정부, 수산과학 등의 과정을 새로이 개설하여, 인니측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참가자들의 흥미를 더하였다.

이번 행사는 석사과정 귀국연수생의 자발적인 준비아래 진행되었으며, 귀국연수생의 연수과정 및 생활 경험, 현업 적용 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KOICA는 인도네시아 각 부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분야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잠재력 발현을 지원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귀국 후 현업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동창회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주력을 다하고 있다.

OKT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회 차세대협의회 상반기 정기총회

2015년 3월 14일 토요일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지회장 강희중, 위원장 서준형, 대표 원영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회 차세대 협의회의 정기총회가 SCBC 아랑22에서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첫 공식 행사이며 1~2년의 임기를 마친 차세대 위원장과 대표의 이취임식도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OKTA 자카르타 차세대 협의회는 작년 50명의 무역스쿨 졸업생을 포함, 7년동안 350여명의 우수한 무역스쿨 사관생도들을 배출하여 교민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무역스쿨 졸업생들에게는 전세계 OKTA 졸업생



들과의 교류와 모국방문교육 등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올해도 6~8월 사이에 50명을 모집하여 8기 무역스쿨을 개최합니다.

2015 아라테 테니스 대회 개최



2015년3월29일에 자카르타 스나얀에 있는 겔로라봉카르노(스나얀스타디움) 테니스 코트에서 아라테오픈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대회는 자카르타 한인테니스 동호회중 가장 대표적인 아라테 테니스 클럽(회장 김시현)이 주최하였는데 자카르타의 한인테니스 동호회 회원들과 개인 참가자등 40명의 선수를 비롯하여 관람자등 60여명의 한인들의 자치가 되었다. 자카르타에는 3개의 한인테니스 동호회가 있는데 자카르타 슬라탄 지역에는 아라테 테니스 클럽이 있고 땅거랑에는 아마르따뿌라 테니스 클럽(회장 김상훈)이 찌까랑에는 인코 테니스 클럽(회장 박준규)이 있다.

이날 대회는 복식경기로만 진행이 되었는데 실력에 따라 마스터부와 챌린저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다. 예선전이 끝난 후 준결승전 부터는 국제경기가 열리는 센터코트에서 게임이 진행되었는데 관람석에 앉아서 주최측에서 제공된 도시락을 먹으며 관람할 수 있어서 더욱 즐거운 모습이였다. 마스터부는 아라테 테니스 클럽 소속의 강희택 이규백 조가 우승을 하였고 챌린저부는 아마르따뿌라 테니스 클럽 소속의 정문섭 권준구 조가 우승을 하였다.

이날 주최를 한 아라테 테니스 클럽 김시현 회장은 “단일 테니스 클럽이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고 진행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테니스를 사랑하시어 대회에 참가해주신 선수들과 관심을 갖고 관람해주신 분들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자카르타에 거주하시는 한인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한 스포츠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좋은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조영함 지휘부 초청 환영만찬

26일, 한인회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한솔레스토랑에서 소말리아 청해 부대 17진 귀국 중 입항한 대조영함 지휘부를 초청하여 환영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 해군 대조영함(함장 황선우 대령)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 한국 선박 안전 운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부산을 출항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Tanjungpriok 항구에 입항한 소말리아 청해 부대 17진 귀국 중 군수적재 목적으로 입항하였다.

이 날 한인회는 천암함 5주기를 맞이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이역만리에서 험준한 파도와 사막의 뜨거움을 이겨내고 임무

를 완수한 청해 부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사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승은호 명예회장의 “제복을 벗으니 더 멋있다”는 간단한 인사말을 시작으로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인도네시아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신기엽 한인회장은 “당신!! 멋져!!” 라는 건배사를 통하여 당당하고 멋있게 살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황선우 함장은 “어느 항구보다 뜨겁게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 국가의 격을 높이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해군은 한국교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군이 될 것이다.” 고 강조하며 “바다로!! 세계로!!” 건배사를 했다.



<대사관 이인호 총영사 이임>

재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이인호 총영사가 3월 24일자로 2년 4개월 인도네시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이임했다. 이인호 총영사는 지역한인회를 다니며 원활한 민원업무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지역한인과 인도네시아현지관계자들과의 교류확대를 지원하고 발로 뛰는 순회영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였다. 지역의 각 한인단체, 각종 협의회와 재외동포재단, 한국의 기관들과의 가교역할과 사건,사고를 현장중심으로 풀어 나가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인호 총영사는 “인도네시아가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떠나려니 무언가 두고가는 것처럼 아쉽다. 많이 배우고 간다” 고 말하였다.



제목 : 인도네시아 이인호 총영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어아시아 사고 유가족입니다. 원래 이런 곳에 글을 남기지 않는 편인데 그냥 넘어가면 사람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수색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이 수라바야에 있는 동안 이인호 총영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터 마지막 돌아가기까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만큼 꼼꼼하고 완벽하게 챙겨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영사님이 제공해 주셨던 서비스를 언급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서 동포들이 영사관에 과도한 요구를 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사고 유가족을 대하는 에어아시아의 태도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을 피해서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고 체류기간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필요를 묻고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인호영사님의 끊임없는 관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에어아시아와 직접 소통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요구하기 어려운 부

분들을 적절하게 나서서 해결해주셨습니다. 한국을 대표하시는 영사님이 낮은 자세로 솔선해주시니 자연스럽게 그것이 에어아시아에도 전달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덕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인터넷 뉴스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중략)

시의적절하게 인도네시아에 방문하여 수색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우리정부의 입장을 인도네시아 수색구조청에 피력해주심으로써 가족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시신을 발견, 보관, 이송, 화장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서류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장례식에 시간을 맞춰서 일을 추진했는데 이인호 영사님의 꼼꼼함이 없었다면 제때에 출국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김포공항에서 분골함이 나갈때까지 전화로 확인까지 해주셨던 완벽한 일처리에 가족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상기 내용은 지난 1월 25일 외교부 홈페이지 '칭찬 합시다' 에 게재된 글의 일부입니다.



인도네시아인 주도로 열린 한류축제 성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젊은이들이 기획하고 진행한 한류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21일 오후 ‘자카르타 KT&G 한국어학당’ 이 있는 자카르타 남부 그라하 STK 빌딩 주차장에 한국 음식의 식권을 사기 위해 몰려든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50m 이상 장사진을 이뤘다.

1주년을 맞은 KT&G 한국어학당의 현지인 강사와 학생들이 기획해 연 이날 길거리 음식 페스티벌에는 현지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총 1천 명 이상의 젊은이가 방문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21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KT&G 한국어학당’ 건물 앞 주차장에서 열린 ‘길거리음식 페스티벌 행사’ 에서 참가자들이 떡볶이를 구입하고 있다. 2015.3.21 (자카르타=연합뉴스)

행사장에서는 한국어학당 수강생과 자원봉사자들이 떡볶이, 어묵, 김밥, 식혜 등 한국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고, 특설무대에서는 K-Pop 커버댄스 공연이 이어져 축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공연장 한쪽에는 한국 탈 만들기 체험과 비영리 공익단체인 아름다운가게 자카르타점에서 의류를 판매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인니문화교류원의 김상태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행사는 홍보가 잘 돼 인도네시아 젊은이 1천 명이 상이 방문했다” 며 “아름다운가게 자카르타점이 음식과 물품을 제공했고, 현지인 한류동아리 한사모가 공연해 프로그램이 다양해졌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강사들이 주축이 돼 행사를 기획한 만큼 현지인 취향에 맞춘 행사가 됐다” 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KT&G 한국어학당’ 은 KT&G가 후원하고 인도네시아의 민간단체 한·인니문화교류원과 한국의 언어·문화 봉사단체 BBB코리아(회장 유장희)가 공동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문화교류기관으로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신성철 통신원

JIKS 초등 신입생 입학식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서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다.

3월 3일 오전 10시 20분 본교 나래홀에서 진행된 입학식은 58명의 신입생들이 6학년 선배들과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신입생에 대한 입학허가, 1학년 담임교사, 부장 및 교과 담당 교사들의 소개, JIKS 합창단의 축하 등이 이어졌다. 입학식이 끝난 후 반별 촬영 및 각 반에서 담임 교사들의 학교생활 안내가 있었다.

JIKS의 김승익 교장은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기, 약속 잘 지키기, 책을 많이 읽기’를 부탁하였고, 학부모들에게는 학교를 믿고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할 것을 약속하였다.



진로교육전문가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 JIKS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대상 진로특강



한국의 저명한 진로교육 전문가인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의 진로특강이 2015.3.17.(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JIKS 나래홀

에서 있었다. 강연은 JIKS 재학생 대상으로 60분, JIKS 학부모 및 진로교육에 관심 있는 교민,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90분간 각각 진행되었다.

‘미래의 인재상과 직업세계의 변화’를 주제로 한 학생 대상 강연과 ‘시대변화에 따른 현명한 진로선택 전략’을 주제로 한 학부모 대상 강연에서 조진표 대표는 성실한 사람 찾기가 힘든 현실 상황을 사례를 통해 미래의 인재상으로 ‘성실’을 가장 큰 미덕으로 제시하였다. ‘성실’은 습관에

서 나오는 것인 만큼 성실성을 갖추기 위해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올바른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본인의 노력은 물론 부모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무한 경쟁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열정과 전문성, 협업 능력과 글로벌도전정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강연 중 특히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에서 학생·학부모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조진표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비할 수 있는 진로교육, 특히 아이들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참석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당부하였다. 이번 강의가 학생들에게는 ‘행복한 미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상위 1%가 될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찾고 그에 부합하는 자기설계와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자녀의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선봉적 역할 수행

교육부 지원금 유치를 통한 특수학급 교실 새단장 등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는 재외 한국학교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전문화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 중등에 각 1학급(초등 6명, 중등 4명)씩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각 학급에는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를 한국에서 초빙하여 별도의 교육계획과 교육과정을 수립·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2015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해서는 교육부 지원금을 통해 특수학급 교실을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한층 더 안락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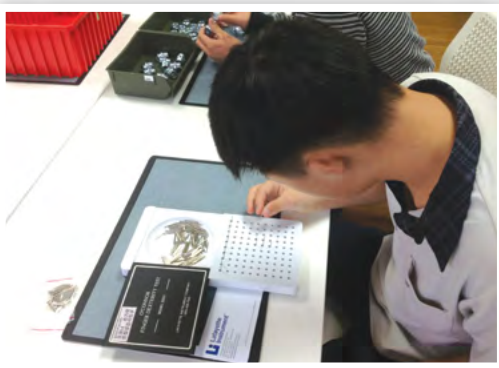
나이 어린 초등 특수학급은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싱크대를 설치하고, 다

양한 감각수업을 할 수 있도록 미술작업대를 비치하였으며, 안전을 고려하여 쿠션으로 제작된 놀이공간을 확보하는 등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중등 특수학급은 원활한 사회 전환교육을 위해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작업 교구를 정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운동기구도 구비하는 등 교육 기자재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의 특수학급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13년도부터 계속된 '재외 한국학교의 특수학급 운영에도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직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한국학교로서는 처음으로 교육부로부터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2만 불의 지원금이 확보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재외동포 자녀의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관심이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특수학급 운영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여타 다른 재외 한국학교에서도 특수학급 운영이 보다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JIKS, 원어민과 함께 하는 모닝인터뷰 몸도 튼튼, 영어도 쑥쑥!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는 본교 특색 교육과정인 글로컬(Global+Local의 합성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2013학년도부터 원어민 교사가 한국인 담임교사와 서로 협력하여 학습을 운영하는 복수 담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복수 담임제는 2013학년도 6학년, 2014학년도 5,6학년, 2015학년도 신학기에는 4~6학년으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학생,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수시로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어민 담임교사들은 학생들과 모닝인터뷰, 간식 시간 학생 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등을 맡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올해 색다르게 시도한 모닝인터뷰는 본교에서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실시 중인

운동장 걷기와 결합하여 매일 아침 원어민과 학생 한 명이 트랙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모닝인터뷰는 교실에 앉아서 나누는 면담보다 학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영어 사용에 있어서 자신감을 높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원어민 담임 선생님이 주도하여 어려운 형편의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돕는 Sahabat Anak(뜻: 어린이의 친구)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영어 프리젠테이션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직스는 원어민 교사들의 노력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어민 복수 담임제가 정착되고 있음에 따라 글로벌 소양을 갖춘 창의 인재 양성이라는 JIKS 비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즈빠라 (Jepara) 한글학교소식

자카르타에서 항공편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스마랑(semarang)에서 다시 자동차로 2시간 이동거리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군단위) 즈빠라(Jepara).

시골마을에서 한인2세들의 자그마한 꿈은 시작 됩니다.

ㄱ, ㄴ, ㄷ, ㄹ..... 아, 야, 어, 여.....

선생님의 선창에 아이들은 입을모아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한글학교가 시작된지 이제 1년반이 지났습니다.

아려운 지역 환경과,여건속에서 시작은 미비 하였지만, 열정과 꿈은 그 어떠한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었습니다.

즈빠라 한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 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상 현재 한글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백프로 “다문화 가정”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수 15명 남짓.

앞으로 한인2세들의 자녀 수는 계속 늘어 갑니다.

고국의 언어와 문화를 알게하여 자랑스런 한민족의 자손임을 알게 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밝고,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이자리를 빌어 즈빠라 한글학교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계신 KOIKA 재단과 봉사단원 선생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Jepara 한인회 , 조영성 총무)



2015년 3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OECD,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파란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다. OECD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2015년 5.3%, 2016년 5.9% 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년에 비해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평가다.

2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앙헬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가 최근 동남아시아 및 주요 신흥국을 웃도는 성장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 개혁을 가속화하면 고성장이 전망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인프라 투자와 교육 예산 배분의 강화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OECD는 상품 가격의 하락과 국제 수요의 둔화를 배경으로 인도네시아 성장률이 부진한 것을 분석, 규제 불확실성과 인프라면 취약점이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틀의 개선 이외에서는 인프라 정비가 높은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프라에 충당할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무 총장은 “인구수에 비해 세수가 적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며 중앙 정부가 강한 세수 확보의 자세를 보여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징수를 실행하도록 요구했다. 세계 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GDP(국내 총생산) 대비 세수 비중은 동남아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낮다.

아울러 OECD가 실시한 인도네시아 첫 국제 학업 성취도 조사(PISA)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학업 능력은 OECD 평균보다 약 3년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교육 지출이 GDP 대비 2% 정도였다는 것을 근거로 교육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4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전망' 을 인용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2015년 5.5%, 2016년 6.0%로 전망했다. 2014년의 5.0% 에서 2년 연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코 위도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개혁의 추진력을 높게 평가했다.

인니어 시험 철수할 수도... 소문만 무성

조코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설익은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무비자 입국과 외국인력에 대한 인니어 능력 시험이 대표적인 예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인도네시아 자국민도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자카르타글로브는 24일 돌연 정부가 인니어 능력 시험을 철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하니프 다끼리 인력이주부 장관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에 대해 인도네시아 능력 시험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려면 응당 인니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도네시아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인니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지난주 조정장관들도 인니어 능력 시험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현재 내각에서 논의 중”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보통은 자국민 사업자들도 사업하는 데 전문 지식이 있는 외국 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규제를 하면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인니어 능력 시험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정부 관계자는 ‘인니어 능력 시험 취소’ 는 소문일 뿐이라며, 취소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24일 어떤 언급도 없었다.

어학시험 등 다양한 제재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비자 허가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니어 능력 시험 계획을 철폐한다면, 외국인 기업들은 상당히 고무될 것” 이라며, 인니어 시험은 불필요한 장벽이라고 말했다.

유습갈라 부통령은 지난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인니어 시험 계획은 ASEAN 경제 공동체 출범 후 자국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니어 능력 시험이 시행될지 증도에 무산될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에너지 광구 새 규정 공포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석유·가스 광구 지분 배분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민간 기업의 지분 소유를 인정해 왔으나 향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자원부가 계획중인 새로운 규정하에, 지방 정부 산하의 공기업이 전체 지분을 취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영 기업 또는 중앙 정부의 정부 투자 방식으로 지분 취득에 나설 전망이다. 민간 출자는 전면 불허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광구 운영 사업자는 지분의 10% 이상을 지방 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요구되어 왔다. 공 기업이 지방 지분을 인수 할 의사가 없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및 에너지 광물 자원부 측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석유, 가스 광구 개발에 대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최대한 빨리 시행에 옮길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경유에 의무 혼합하는 바이오 연료의 비율을 15%로 확대한다. 이로써 정부는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이 15%로 늘어나며 올해 바이오연료 생산량이 530만 킬로리터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경상수지적자 25억4천만 달러를 줄일 수 있는 수치다.

수디르만 사이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이날 “5년 이내에 바이오연료(BBN/Bahan Bakar Nabati) 혼합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정부는 경유의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을 10%로 설정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리다 물야나 신재생 에너지국장은 “바이오연료로 이용되는 CPO(팜원유) 생산량이 작년 3,100만 톤에서 올해는 3,300만 톤으로 늘어날 것” 이라고 자신하며 “현재 바이오디젤 수요는 CPO로 커버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연료 의무 혼합비율을 20%까지 늘리더라도 무리 없다” 고 밝혔다.



판 짜는 중국과 못마땅한 미국, AIIB 준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밤방 브로조노고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중국이 주도하고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본부를 자카르타에 유치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크레딧 스위스의 행사에 참석한 밤방 장관은 루 지웨이 중국 재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AIIB본부의 자카르타 설치를 위해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안다. 우리 모두는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장관은 AIIB가 기존의 ADB(아시아개발은행)과는 다르게 인프라개발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AIIB는 아시아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은행으로서, 발전 여력은 충분하지만 낙후한 아시아 지역의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등에 투자를 목표로 한다. 참가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21개 국가이며 지난 2013년 10월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진 리쿰 AIIB 설립 책임자는 “적어도 이달 31일까지 AIIB 설립에 참가를 원하는 35개 국가들이 확실하게 의견을 모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뉴질랜드는 이미 지난번 베이징에서 있었던 회담에서 참가의사를 밝혔으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AIIB의 발기인으로서 참여 부탁에 대한 확답을 아직 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자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하여, 기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내키지 않는 듯 하다. AIIB에서 중국이 차지하게 될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의사결정의 투명성, 정당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인도네시아에 팔린다'

한국조폐공사가 국내 골드바를 인도네시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다.

25일 조폐공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홈쇼핑 채널인 '오 채널(O CHANNEL)' 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본격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골드바는 오롯(Orodt)골드바로 고순도를 나타내는 999.9가 표시됐으며 후면에는 모조품 장지를 위한 위변조방지 기술인 잠상기술이 적용됐다.

조폐공사 측은 이번 MOU체결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텍(EMTEK)의 홈쇼핑 채널이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판매 외에도 조폐공사는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골드바 및 기념메달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순신, 류성룡 등 한국 위인을 포함한 아시아 위인들의 모습을 담은 기념메달 제작·수출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측은 “2016년말까지 총 2000만달러 이상 수출액을 내다보고 있다” 고 말했다.

김화동 조폐공사장은 “ ‘오롯 골드바’ 를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킬 것” 이라며 “조폐공사는 해외 수출을 추진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체와 영세 소상공인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더불어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순간 & 영원



Bumi Tuwo / Indonesia

나는 가지 않으리
별이 쏟아진다는 히말라야로
천지를 뒤흔든다는 나이아가라로
나는 이곳에 남으리
한 무리 소 떼가 나를 깨우는 곳
숲을 지나는 바람과 마주 인사하는 곳
하루가 하루를 열어
오래 걸었어도 늙지 않는 이 길에
내 삶의 발자취를 이곳에 묻으리
멀고 먼 성지를 돌아온 순례자처럼

“엄마 베리농장 같이 가자!!!”

민수진 (초콜라피에)



“엄마 베리농장 같이 가자!!!”
 우연히 밴드에서 알게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이하 헤리티지) 코리안 섹션의 베리농장 탐방소식을 듣고 딸아이에게 의사를 묻자, 바로 하는 말이였다.
 마침 아이가 학교 방학 시작하는 즈음이라 여행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딸에게 당일코스 베리농장체험은 안성맞춤 자연의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보고르 CIPANAS로 출발!!!
 네델란드인이 직접 과학적 농법으로 운영하는 블루베리, 라즈베리농장으로 고고~

찌부부르휴게소에서 1차 만남을 통해 서로들 인사를 건네는데,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둘둘 짝을 지어 신청하여 오신 분, 나처럼 엄마와 자녀 함께 오신 분, 그리고 베리농장을 견학하고 싶어 혼자 오신 분까지 다양한 곳곳에서 오셨지만 한결같이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반겨주었다.
 함께 동승했던 분들은 처음 만난 분들이었지만 모두들 각자의 일 속에서 시간을 내어 이번 탐방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차에 동승한 분들의 재미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들으며 재미난 이야기로 짧게만 느껴지는 즐거운 여행의 출발을 예시하며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시간 가는줄 모르고, 한참 이야기 꽃을 나누고 있는 중에 드디어 뽀짝 빠쓰에 도착.
 뽀짝 빠쓰에서 최종 목적지 농장가는 길은 승용차로는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비포장 오르막길. 차에 덜컹거림에도 차창밖으로 보이는 산들과 좁은 오르막길 옆으로 지나가는 아이들이 차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손을 흔들며 해맑은 미소를 지어주니 자카르타에서느낄 수 없었던 인도네시아 사람

들의 순수함을 새롭게 느끼며 피곤치 않게 농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드디어!!!
 최종 목적지 베리농장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아주신 인자하면서도 멋스러운 네델란드인 농장부부. 이름도 한스~ 아저씨라니, 정말 농장주인 이름에 잘 어울린다.

첫번째 감동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식탁에 한상가득 준비해 놓은 베리류 뿐만 아니라 음료수를 꺼내고,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 시골사람들의 인심처럼 농장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더 느껴지게 되어 더욱 정감이 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농장을 둘러보기 전에 풍성하게 준비해 놓은 베리류들을 맛볼 수 있었는데, 맛본다기보다 맛있는 베리류를 맘껏 먹을 수 있었다.

맛?
 히~ 그걸 말로해야 알 수 있을까?
 블루베리는 인도네시아에 와서 제일 맛있는 블루베리 맛을 볼 수 있었고, 딸기도 상품화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익어 바로 먹어야 하는 딸기를 준비하였다는데, 내 입엔 덜 익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고 맛있었다.

굳이 한국 딸기 맛과 비교한다면, 한국딸기가 더 맛있긴 하지만... 히히 약간의 애국심!!!

이곳에서 재배하여 포장된 베리류들은 이미 우리가 먹어왔던 것들인데,

All seasons Holland...
 롯데마트나 큰 과일 상점에 거의 들어가고 있다면 자카르타 어디에서든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많은 베리들을맛있게 시식하며 다과를 나누면서 도란 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탐방 목적이었던 농장을 둘러 보게 되었다.

두그룹으로 나누어 1차 선발대 출발 후, 2차 그룹은 아이들이 있는 엄마와 자녀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두번째 감동,

이곳은 과학적 농법으로 운영되고 더군다나 베리 수확은 이른아침에 이루어져 딸기 따기 체험을 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이번 탐방일에 맞춰 딸기따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른 아침에 가야할 딸기를 따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준비해 놓으셨단다.

우와 ~ 이렇게 감사할 일이...

딸기 따는 농부가 되어, 신나하는 아이들~

오늘 이곳에 오자했던 내 딸 장본인도 이런 기회가 없으니, 빨갭게 익은 예쁜 딸기들을 잠깐 사이에 많이도 봤다. 아이들이 신나하니 친절한 농장 직원들이 아이를 따라다니며 같이 따 주기도 하고, 직원들도 농장주인만큼이나 친절하구나.

정말 안 왔으면 어땠을까~

농장탐방은 딸기따기 체험을 시작으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부부가 한팀당 한분씩 배정되어 그 분을 따라 둘러보게 되었다. 탐방인원이 40명에 육박하여 두팀으로 나누어 탐방을 하게 되었고 통역사도 두명을 준비하셨다. 헤리티지의 통역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동행하여 벌을 이용한 수정에서부터 대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키우고 있는 묘목과 묘목을 잘라 배양을 한다는것까지 한곳한곳 둘러보며 자세한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농사에 농자도 모르지만, 이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곳은 관개시설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이 방법은 저수지에 빗물을받아 정화하여 필요할때마다 파이프를 통해 물을 제공하는 농작법도 배우게 되고...

맛있게 먹고 예쁘기만 한 베리를 키우는 농장주인을 따라 높은 사자락에 위치한 농장을 한바퀴 쭉욱 둘러보는데 자연의 신비로움과 위대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정도임을 또한번 느끼 수 있는 체험이 되었다.

이렇게 키우는 베리류들은 씻지 않고 먹어도 될정도로 깨끗하게 재배되어 포장에도 신경을 쓰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대규모임에도 함께 어울려 둘러보다보니 짧게 느껴지는 베리농장견학을 마치고 베리류들을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블루베리는 수확이 1월에 이미 모두 마친 후라 블루베리 납품을 위해 수입을 해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시식할때 먹어본 블루베리는 최고였기에 블루베리를 구입을 하였고, 직업이 직업인만큼 라즈베리의 예쁜색과 잘 어울리는 고급 타르트를 만들 생각에 라즈베리도 구입하였다.

모두들 각자 원하는 베리류를 구입하고 단체사진까지 찍고나서야 점심식사가 약속된 식당으로 내려 올 수 있었다. 이번 탐방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산자락을 내려오기전까지 신경써주신 농장부부의 인심과 배려는 처음 헤리티지의 회장님이 당부하였던 함께 하는 탐방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이 떠오르면서 배려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신 농장주인 부부가 참 인상깊게 가슴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이 세번째 감동이다.

우리 모녀에겐 이번 탐방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처음으로 같이 한 단체여행이었지만, 탐방의 시작이 될거같다.

우연히 알게 되고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큰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딸과 그리고 처음 만난 분들이지만 어색함없이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함께 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더 좋은 탐방이 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이번 여행에서 뭐가 제일 즐거웠다고 딸에게 물어 보았다.

“ 당연히 딸기 따기지! 엄마, 다음에 또 가자 ”



빈센트 반 고흐 <꽃피는 아몬드 나무>



작가 :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Willem van Gogh,
1853.3.30~1890. 7.29)

작품 : 꽃피는 아몬드 나무 (Blossoming Almond Tree)
oil on canvas, 73.5 x 92cm

지금쯤 한국에선 봄꽃축제가 한창이겠다.

긴 겨울 안으로 안으로만 모아지던 에너지가 일시에 솟아 오르는,
앞보다 먼저 피어오르는 생명들. 4월에 있는 부활절과 봄꽃축제는 그렇게 닮아있다.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이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다가 결국엔 삶과 빛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꽃 핀 아몬드 나무〉를 처음 보았을 때 조금 의아했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희의 분위기는 아니었다.

나선, 물결, 원 등의 형상을 이루며 소용돌이치는 선과 터치.

다양한 보색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색채.

발작적으로 먹기도 했다던 진한 물감 덩어리와 거친 마티에르.

화려하고 단순함에도 묵직하게 감지되는 어두움.....

그런데 이 작품은 다르다. 매우 우아하고 차분하며, 당시 유행하던 자포니즘풍의 구도와 단순한 색상이 ‘명품’의 분위기이다.

터키블루의 하늘을 배경으로 ‘온전한 정신(sanity)’이 화사하게 꽃 피우고 있다.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1년 전 같은 날에 사산된 형의 이름을 물려받으면서 태어났다.

부친이 목사님인 탓에 그는 교회 마당에 묻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보면서 자란다.

가족력인 정신질환이 있었으며 독서광이었고, 터무니없이 강렬한 열정과 순수를 지녔으며 상식을 초월한 스캔들 메이커이고, 목숨을 건 다작과 수준 높은 편지글들, 심한 사회 부적응과 권총 자살. 그의 인생행로를 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게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고희에게도 유토피아는 있었다. 화가들의 공동체를 꿈꾸던 남프랑스 ‘아를르’ 시절이다. 그는 햇살 좋은 아를르에서 봄을 맞이하며 아몬드, 살구, 복숭아 꽃나무들 연작을 필두로 엄청난 작업을 한다. 고희의 화풍은 이 시기에 완성되며, 걸작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다시 생 레미 요양소로.

〈꽃 핀 아몬드 나무〉는 생 레미의 병원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올 무렵 그린 그림이다. 평생을 이 해해주고 후원해준, 분신과도 같은 동생 테오(Theo)가 결혼을 하고, 태어난 첫아들에게 대부분 고희의 이름을 따라 ‘빈센트’란 이름을 지어준다. 죽은 형의 이름을 받고 태어나서 질곡이 많은 삶을 살았던 고희에게 ‘새로 태어난 빈센트’가 어떤 의미였을지 짐작이 된다.

이 작품은 새 생명 빈센트를 위해 그린 선물이다. 그는 좋았던 시절의 아몬드 꽃을 기억해 내서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보는 것처럼 밝은 색으로 생생하게 그렸다. 새 삶의 희망이 아몬드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을 것이다. 생애 단 한 점 팔린 그림 <붉은 포도밭>도 이 때 400프랑에 팔렸다. 이 무렵 편지글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고, 다르게 살고 싶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고희에게도 추억할 화양연화의 시절이 있었고, 다시 태어날 기쁨과 희망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에 마음이 놓인다.

글:김선옥(인니 미협회원/땅그랑문화원회화반 강사)



비움의 미학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하늘빛이 회색으로 짙어지는 해질녘의 오후에 FM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나른한 행복감에 젖는다. 전파를 타고 전해져오는 감성적인 멜로디는 가슴을 아리게 한다. 역시 아름다운 음악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마력이 있는 것 같다. 나긋나긋한 방송 진행자의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한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영국에서 미적 감각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어느 공작이 재계에서 이름난 부호의 초대를 받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부호는 공작에게 찬사를 듣기위해 집안을 유럽의 고급가구와 장식들로 가득하게 치장을 했다. 거실과 침실 및 창문의 커튼, 조명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서 화려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드디어 공작이 부호의 집에 도착하여 이리저리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도 고개만 끄덕일 뿐, 정작 기다리는 부호에게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 대접을 받고도 묵묵히 앉아있던 공작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집안이 너무나 화려하고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군요. 조금은 비어있는 여백의 공간도 있었다면 더욱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공작은 이 한마디를 남긴 채 감사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문득 이 이야기를 듣다보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주변과 안팎을 돌아보면 버리고 없애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우선 우리의 내면에 가득 채워져 있는 많은 생각들과 불필요한 인성의 이끼 같은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는데 잘 되질 않는다. 집안에도 가득 쌓여있는 가재도구며 장롱마다 넘쳐나는 옷들과 꼭 필요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집안 곳곳의 꾸러미들은 자꾸 늘어만 간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 매일 사들이고 충동적인 구매로 시간을 소비한다. 어찌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식이든 물질이든 어느 것 하나라도 더 얻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입식 교육만 받아왔지, 한번도 내려놓고 비워내야 하는 교육법은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법을 터득하려고 무수히 많은 종교에 의지하고 정신수양도 하며 애를 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얼마나 많은가? 돈이나 물질, 권력 같은 사사로운 욕심, 질투와 불만과 이기주의 등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은 다 내다 버려야하건만 그것을 깨닫기까지 어쩌면 평생 또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린다.

나또한 마음비우고 생각 내려놓는 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다. 우선 마음을 담아놓은 세월의 찌꺼기들을 비우고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틈만 나면 버리고 또 버린다.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눈만 뜨면 생겨나는 탐욕은 잠시라도 방심의 틈을 주면 또 다시 채워지기 시작한다.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창고는 언제나 넘쳐나는지도 모르겠다. 가령, 백화점에서 세일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손에는 저마다 쇼핑백에 새로 산 물건들이 가득 들려있다. 집에 가져와보면 그다지 급한 것도 아닌 별로 필요한 것도 아니건만 여전히 새것에 새로운 물품에 연연한다. 나 역시 그랬다. 어쩌다 백화점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집에 와서 풀어보면 씩씩한 웃음을 짓곤 한다. 아직도 비우는 법을 익히지 못하고 날마다 새로운 내면의 탐심에 저항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내 책상에는 언제나 비우는 법을 새롭게 깨우쳐주는 법정스님의<무소유>라는 책이 있어 시간만나면 꺼내어 읽는다.

‘일상에서 소용되는 그 많은 물건들,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필요한 것들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은 것들이 적지 않다.’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도 되지만 그만큼 세상사에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법정스님의<무소유>중에서도 나는 이 글귀를 무척 좋아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삶의 지침서가 될 만큼 무소유의 삶은 늘 내마음속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때로는 너무나 깔끔떠는 아내와 엄마로 인식될 만큼 잘 나누어 주고 잘 버리고 열심히 정리정돈을 하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

지만, 법정스님의 말씀 언저리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까마득하다. 그만큼 세상 때를 벗지 못하고 있음을 통감한다. 의미는 다르지만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진심으로 존경스럽다. 신체적인 비움의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서이다. 때로는 종교의식으로 며칠간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본다.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다 체외로 내보내고 깨끗하게 내면을 비운 후의 경이로움, 그런 신체적 비움의 의식은 누구나 한번쯤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다.

나는 매번 신체적으로 비우는 다이어트엔 실패하기 일쑤지만 나의 일상생활에서만큼은 비움의 철학을 실천하고픈 마음 간절하다.

지금 지상에서는 계절이 바뀌고 있다. 이곳 인도네시아는 우기에서 건기로 옮겨 가느라 하늘에서는 때 아닌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고 비 폭풍을 쏟아 부으며 한바탕 흥역을 치루고 있다. 한국의 계절도 떠나가는 겨울이 막바지 매서운 꽃샘추위를 날리며 쉽게 비워내지 못하고 다가온 봄을 시샘하고 있다. 겨울과 봄의 문턱에서 잔인한 4월의 묘한 기운이 교차한다. 나는 한바탕 옷장의 옷을 정리해본다.

구석구석에 있는 옷들을 다 꺼내어 찾아 입을 것은 입고 입지 않을 것은 과감하게 구분해놓고 나누어주고 처리한다. 부엌에도 싱크대 물건들을 모두 꺼내어 반드시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들을 구별해 놓는다. 거실 탁자에 있는 이런 저런 월간지와 신문들도 앞으로는 한두 가지로 줄여볼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깊이 뿌리내린 끝없는 채움의 열망을 차근차근 파헤쳐보고 정리해보려고 다짐한다. 비어있는 곳에는 청정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곳에는 무거운 짐도 없고 자유로움과 채우기 위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다.

여백이 있어서 편안히 숨을 쉴 수 있는 곳, 행복을 나누는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빈공간이기에... 아직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법정스님이 남기신 심오한 비움의 미학인 무소유의 향(香)을 이제야 어렵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



자카르타의 출발점, 순다 끌라빠 (Sunda Kelapa)의 역사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옛 자카르타(순다 끌라빠)는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순다 끌라빠 항구(Pelabuhan Sunda Kelapa), 어시장(Pasar Ikan), 전망대(Menara Syahbandar), 해양박물관(Museum Bahari), 루아르바탕 마을(Kampung LuarBatang), 동인도 조선소(VOC Shipyard), 도개교(Jembatan Pasar Ayam), Jalan Kali Besar, Toko Merah, 등이 있다. 근처의 도시지역으로는 파따힐라(Fatahilah) 광장, 역사박물관, 예술박물관, 외양 박물관 등이 있다. 이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자카르타 성장의 역사적 개요와 동인도회사(VOC)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순다 끌라빠(Sunda Kelapa) - 힌두교 시대 순다 끌라빠 항은 찰리웅(Ciliwung)강 어구에 위치하여 빠자자란(Pajajaran) 지역의 순다 힌두왕국의 수도 빠꾸안(Pakuan, 현 Bogor)과 바다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중심 항구였다. 서부자바에서 가장 큰 항구로 5세기 Tarumanegara 힌두왕국 시대부터 이용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Sundapura라고 불렸다. 12세기에는 Sunda왕국의 항구이고 후추항구로 유명했다. 중국과 일본, 남쪽인도, 중동에서 온 외국선박들이 이 항구에 정박시키고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상품인 향신료와 물물교환하기 위해 도자기와 커피, 실크, 향수를 가져왔다.

자바 북쪽 해안선을 따라 있는 이슬람 왕국들의 위협에 고심하고 있던 순다 왕국은 1522년 포르투갈과 조약을 흔쾌히 맺고, Padrao Stone이라는 기념석을 지금의 쯡게거리(Jl. Cengkeh)와 Kali Besar Timur III 거리의 교차로에 세웠다. 기념석은 1918년 재발견된다. 포르투갈은 순다 끌라빠에 요새와 거주지, 그리고 사무소를 지어주고 순다 왕국은 우정의 증표로 1,000 바구니의 후추를 주는 조건이었다. 포르투갈은 이미 1511년 말라카 정복했었다.

*승리의 도시 자야카르타(Jayakarta) - 유럽 식민지 초기~ 이슬람교 시대

1527년 6월 22일, 이슬람 드막(Demak) 왕국은 padrao 조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왕자 파따힐라를 보낸다. 그는 쥘르본 왕국과 연합하여 순다 끌라빠를 점령하였다. 그때부터 이 항구도시의 이름을 산스크리트어로 '노력을 통해 얻은 승리'를 뜻하는 자야카르타로 바뀌었다. 즉 승리 혹은 영광 도시란 뜻이다. 자카르타라는 이름이 자야카르타에서 유래됨으로 1527년 6월22일이 자카르타 생일이 된다.

*바타비아(Batavia) -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1602년-1942년)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가 설립되었지만 1610년 파따힐라왕자와 조약을 맺기 전까지 그들은 상업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 조약으로 VOC는 목조창고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찰리웅(Ciliwung)강 어귀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1613년 석조건물을 지음으로 파따힐라는 조약을 파기하였다. 1618년 VOC의 새 총독인 얀 피터스존 쿤(Jan Pieterszoon Coen)은 요새로 석조창고를 지었다. 파따힐라왕자는 네덜란드 요새를 포위 공격하고 새로이 도착한 영국과 협정을 맺는다. 하지만 왕자가 반뜰(Banten) 왕의 사전 동의 없이 행하였으므로, 그는 반뜰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에 힘을 얻은 쿤총독은 1619년 5월 자야카르타를 점령하고 바타비아(Batavia)로 명명한다. 바타비아란 로마시대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켈트족 중 한 부족이다. 바타비아는 요새로 시작해 찰리웅(Ciliwung) 강둑을 따라 발전하게 된다. 동쪽제방에는 바타비아성과 깔리브싸르(Kali Besar)강으로 통하는 운하를 만들었다. 늪 지역 몇 군데를 정원으로 바꾸고, 서쪽 제방에는 영국 창고와 자유 중국인들의 거주구역이 있으며 이곳에 자야카르타의 흔적이 남아있다.

17, 18세기동안 바타비아는 번성하였다. 이 도시는 계속해서 유럽 무역에 중

요한 역할을 하였고 18세기 중반에는 미국과 직접 교역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말, 바타비아 옛 도시는 전염병이 만연했다.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저지대를 떠나자 도시는 곧 황폐해졌다. 순다 끌라빠에 남아있는 바타비아의 옛 자취는 어시장, 근처의 전망대에서 보이는 창고들과 조선소, 해양 박물관이 전부이다.

*자카르타(Jakarta) - 일본 식민지 시대 (1942-1945년)

1942년 일본이 침략하면서 바타비아는 자카르타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자야카르타를 편의상 자카르타로 칭하였다. 1945년 일본패망 후, 네덜란드는 '자카르타'라는 명칭 그대로 인도네시아를 다시 지배하려고 했다. 한편 자카르타는 순다와 유럽·중국·인도·아랍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는데 이를 브따위(Betawi) 문화라 한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자바 해는 물론 인도양의 무역항 역할을 하던 자카르타는 이처럼 다채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DKI(Dearah Khusus Ibukota)라는 약칭이 함께 쓰이고 있는 자카르타는 인구 900만이 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수도로 이제 정치, 문화, 무역,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고층빌딩과 대형 쇼핑몰, 고급호텔 등과 함께 현대적인 비즈니스 도시가 되어 명실공히 세계 도시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카르타 연가

고대문화와 역사의 신비를
감추고 있는
기억의 도시에
원시의 태양과 분주한 하루가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데,

동양과 서양의 바다와 자유가
세월의 깊이로
가물란은 식민의 혼돈 속에서 울부짖고
나는 젊은 박인환과 함께
이단의 술을 마시고
회색과 푸른색을 태우는 바람은
안단테로 흔들린다.

사랑을 품은 약속의 도시에
생명의 술잔을 돌리면
마라의 삶은 갈보리 언덕에서
질푸르게 질푸르게 울기도 하는데,

푸른 나이 자카르타에
서럽고 아픈 노을이 쌓이면
그만 고백해 버리고 싶다.
“아직도 나는 목이 긴 앵글렉 되어
설레이는 연을 잡고 싶다고
야자나무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고





266회- 268회 문화탐방

살아있는 고도-족자(Jogja)

일시 : 2015년 4월 24일(금) -26일(일)
집결 : 24일 오전4시 수카르노-하타 공항 터미널2
탐방지 : 보로부두르, 프람바난 사원군, 울렌센파루 박물관
트라빠 화산, 빠랑뜨리띠스 해변 외
항공편 : 가루다(GARUDA) 인원 : 선착순 15명
회비 접수: 540만Rp(비회원 550) Mandiri 900-000-498-3509 / Asrida
문의 : 안미경0815-1421-6766 카톡아이디narae6766 lovekoin@hotmail.com
(회비송금 후 카톡회신 요망)

269회- 273회 문화탐방

술라웨시 (마카사르, 토라자)

일시 : 2015년 5월 13일(수) -5월 17(일) 4박5일
집결 : 13일 오전 4시 수카르노-하타 공항 터미널2
탐방지 : Bugis 종족 마을, Kete Kesu 마을, 레모·또라자 전통장례식장,
Sangalla kingdom왕족묘지, 마카사르 masjid Al-hilal, somba opu 요새 외
진행 : 최문정팀장 (디자인트레블대표)
회비 접수: 690만Rp (비회원700) BCA: 3101951110 MOON JUNG CHOI
항공편 : 가루다(Garuda) 인원 : 선착순 20명
문의 : 0852-8266-2293 KTalk ID elssigu11 lovekoin@hotmail.com
(회비송금 후 카톡회신 요망)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의 중심지 반둥을 느끼다



최우호 (UI BIPA 과정)

인도네시아라고 하면 아직은 우리 한국사람들에게 생소한 미지의 세계가 아닐까 합니다. 저와 같은 새내기들뿐 아니라, 현지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도 일이 바빠서, 혹은 기회가 없어서 인도네시아인들의 문화와 생각, 삶의 방식을 잘 알지 못하고 orang asing (낯선 사람)으로만 느끼고 있는 않은지 깨닫게 해주는 보람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새벽 6시, 연구원을 출발하며 바로 찾아온 멀미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와서 가장 힘든 부분이 차를 오래 타면 멀미를 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멀미 증상에 출발부터 이번 탐방에 참여한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간식과 반동 팸플릿을 분배받고 사공원장님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orang korea(한국사람)라는 단어밖에 모르는 저에게는 설명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어지는 자기 소개 시간에 탐방대원들은 성별, 나이, 직업을 알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온지 일주일 된 저부터 2~30년이 넘는 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20년 넘게 생활하신 분들께서 왜 문

화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어색함은 누구나 겪어본 경험일 것입니다. 먼저 인사를 하기에도 민망하고, 눈을 마주치기에도 어색한.....

이런저런 사색에 빠져 창 밖을 보니 어느새 울창한 숲입니다. 바쁘게 작은 차를 갈아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립니다. 넓디 넓은 호수(분화호)-까와뿌띠(Kawah Putih)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은 가지지 않은 멀미 증상에 정신을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그리고 도착한 까와뿌띠.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장관에 멀미증상은 사라지고 우리 탐방대원들이 모두 천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하강했다는 이곳의 전설처럼.

신과 사람이 만날 수 있다면 그 장소는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접해보지 못한 대자연의 장엄함에 제 카메라 셔터는 쉴 줄을 몰랐습니다. 함께 모여 사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거짓말처럼 옥빛의 수면 위로 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신비한 광경을 눈에 담으려는 순간 또 다시 그님은 사라져갑니다. 잡지 못하게 멀리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다시 돌아오지 못할 첫 사랑처럼. 1시

간 남짓의 시간 동안 자연에게 이런 진한 감동을 받은 것은 단연코 처음이었습니다.

해발 2090m의 고도에 8미터의 깊이인 흰 분화구! 다시 한번 꼭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빠 땡강 호수 (Situ Patenggang)로 갑니다. 가는 길에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녹차 밭은 발인지 산인지 사방에 병풍처럼 펼쳐져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며 아쉬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리지널 현지식을 맛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어느새 우리는 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도 큰 이질감 없이 맛있었지만 밥을 먹는 분위기는 최고였습니다. 눈발이 보이고 창문이 없어 야외에서 먹는 느낌이었는데 초가집 같은 분위기와, 식탁 옆의 작은 연못과 물고기들. 그리고 운치를 더해주는 소나기까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런 감동이라니^^



그 다음 목적지는 lembang에 있는 Floating Market (Pasar Apung)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배도 탈 수 있고, 기념품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호수가장자리에 작은 배를 띄워놓고 먹거리를 파는 사람들. 수상시장이라고해야하나. 막내동생 보다 어려 보이는 아이들이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측은함이 듭니다. 저녁도 산속의 정원 같은 캄땡다운 (Kampung Daun)에서 인니전통식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니는 소

나기가 밋지만은 않습니다. 운치를 더해주시니까요. 식사 후 숙소인 Universal Hotel에서 ‘자바의 파리’를 느끼며 하루를 마칩니다.

탐방 이틀째

8시 30분경 상쾌한 기분으로 Juanda공원으로 갑니다. Juanda 공원 산책로에는 5개의 폭포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물이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황색 물이 아름다워 보이긴 처음이었습니다. 길이 진흙으로 미끄럽고 좋지는 않았으나 조심조심 걸어가면 충분히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사슴농장도 있습니다. 폭포를 구경하면서 1시간 넘게 걸어간 목적지에 네덜란드 굴(Gua Belanda)



이 있습니다. 35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인도네시아. 우리에게 아픔이 있듯 이곳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1918년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 만든 곳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는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동굴 내부는 감옥, 대피소, 무기저장고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켜지 않고 손전등을 나눠주어 구경하도록 합니다. 일본굴(Gua Jepang)도 근처에 있는데 일본굴 또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350년을 통치한 네덜란드시절보다 3년을 통치한 일본시절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겐 더 혹독하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소는 selasar sunaryo art space (SSAS) 입니다. 대가 수나르요(Sunaryo) 선생님은 사라져가는 원시문명과 자연에 대한 애정, 산업화로 인해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추상적인 설치미술로 표현하는 인도네시아 대표적 예술가셨습니다. 우리 탐방대원들은 수나르요 선생님과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며 인도네시아에서 인정하는 예술가의 생각과 견해를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나르요 선생님께서 개인 별장도 공개해주셔서 현지인들의 생활공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생활자체가 예술이었습니다. 아직 현지인 친구가 없는 저는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는 반둥 전역이 내려다 보이는 멋들어진 카페 리송(Lisung Restoran)에서 나시고랭을 먹었습니다. 빨리 밥을 먹고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는 우리는 역시 orang korea !!

다음 장소는 Saung Angklung Udjo 공연장. 서양인,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등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은 아름다운 연주소리가 소박하면서도 애절하기도 한, 가슴을 설레게 해주는 마법의 연주였습니다.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심적으로 아름다움과 화합의 연주로, 공연장에 있는 다국적 사람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주는 매

개체가 되었습니다. 5M으로 유명한 빠다엥 알끌롱 Patengan Angklung으로 관객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연주함으로써 관객에게 공연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큰 호응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5M은 쉬운, 저렴한, 교육적, 매력적, 대중적임을 의미하는 인도네시아어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공연의 마지막은 할로할로 반둥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손에 손잡고 공연의 주인공인 아이들과 관객이 하나되어 무대에 오르는 순서였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눈앞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세계인들,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되는 화합의 기회였습니다.

“할로할로 반둥, 하늘의 천국 반둥, 추억이 가득한 도시, 지금은 불바다가 되었지만 반드시 돌아오리라”

신나는 리듬에 비해 가사는 가슴이 아픕니다. 1946년 영국의 진격을 막기 위해 반둥 남쪽을 불태우고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리라 다짐하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공연을 마치고 앙끌롱을 종류별로 살 수 있는 매장에서 가격이 저렴하니 하나쯤 구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식사는 반둥의 청기와에서 반값으로 해주셨습니다. 품격 있는 서비스와 함께, 한*인니문화연구원원이 교민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한다면서 교민의 한 사람으로 보답차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인들의 정과 화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숙소는 Sangria였습니다. 피곤한 일정에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탐방 삼일째

sangria는 객실에서 반둥의 대자연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리조트입니다. Bandung Lembang에 있는 호텔의 장점은 사방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는 것 입니다. 다듬어 지지 않은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첫 탐방지는 Tangkuban Parahu 화산에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에 모두가 즐겁습니다. 계란도 삶아 먹고 따듯한 물에 발도 담그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구입 팁은 가실 때 사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착해서 바로 샀더니 두 배의 가격으로 목걸이와 팔찌를 사서 속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창의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조각공원 Nyoman Nuarta을 관람하고 서부자바 시청을 보고 46억년의 자연사를 볼 수 있는 반둥 Museum Geologi에서 지구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된 선사시대의 역사를 간직한 인도네시아를 배웠습니다.



탐방 3일차는 버스안에서 사공경원장님의 설명으로 쉽게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오후 4시 우리는 자카르타로 오는 버스에 몸을 싣고 달렸습니다. 남는건 사진이라고 우리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즐겁게 자카르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탐방대원들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다음을 기약하고 다시 각각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삶의 모습을 보고 온 저는 탐방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탐방하던 순간순간을 기억하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지인들의 의식주 생활, 외세의 침입과 통치를 받았음에도 외국인들을 보면 웃으며 인사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이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들은 미개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문화를,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계에 알리는 진정한 한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와 현지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선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조금 더 성숙하게 함으로 대한민국을 더 알리고 인도네시아를 발전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를 주최하시는 한*인니문화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소비의 심리학]
인터넷피아 (internepia)
 인터넷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



젊은 세대는 조그만 PC공간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인터넷서핑을 즐긴다. 이에 뒤질세라 증장년층도 TV 오락프로그램 속 난무하는 자막편집에 익숙해지고, 듣기만 하던 라디오방송에서 카카오톡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참여하는 등 정보의 멀티플레이어가 되어간다. 가히 인터넷으로 구현되는 유토피아 세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사고하도록 길들여지는 듯하다. 인터넷피아(Internepia)에 사는 현대인은 똑똑한 듯, 하지만 점점 바보가 되어간다.

인터넷은 우리 더 똑똑하게 만들었다

인터넷 이용자는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불문하고 매년 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대략 35.7%로 2014년에는 38.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진국은 평균 73.4%로 개발도상국의 27.5%보다 월등히

높지만, 인터넷 신규이용자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확대될 여지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인터넷 이용률은 84.1%로 독일(84.1%), 프랑스(83.0%), 호주(82.4%), 미국(81.0%), 일본(79.1%)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았다.

인터넷의 활용성이나 파급효과 측면을 볼 때, 인터넷은 우리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인터넷서핑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오타고대학의 정치학교수인 제임스 플린(James Flynn)이 주장한 ‘플린 효과(Flynn effect)’의 방증일까? ‘IQ점수가 지난 100년 동안 꾸준히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했다’는 플린 효과가 인터넷 등장으로 기정사실화 된다는 얘기인가... 피상적으로 볼 때 인터넷이 없던 부모나 조부모세대보다는 현세대가 훨씬 똑똑해보이니 말이다.

분명 현재를 살아가는 소비자는 더 스마트해졌다. 문제는 인터넷 기준으로 한 지능을 판단할 때 그렇다는 얘기로, 반은 맞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땐 맞지 않다. 인터넷이 스마트한 소비자로 이끄는 대표적인 사례가 30~40대의 쇼루밍(showrooming)족의 출현이다. 오프라인매장에서 직접 보고 만져보면서 구매하던 과거와 달리,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습득은 물론 각종 할인혜택을 받으면서 온라인구매를 주로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백화점이나 전문매장은 단지 쇼룸(showroom)에 불과하다. 이제 인터넷쇼핑몰은 백화점과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으며, 오프라인매장도 인터넷쇼핑몰을 중요한 유통채널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구도 급속히 늘고 있다. 아마존닷컴 같은 해외사이트를 통한 직접구매 거래액은 2011년 4억7277만달러에서 2013년 10억400만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약 1조원이 넘는 규모다. 국내에선 구하기 힘들었던 해외유명브랜드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만족감, 영어의 언어장벽이 낮아지고 복잡하기만 했던 해외인터넷쇼핑몰 이용이 보편화된 것은 물론, 세관신고 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 미국 외 다른 나라는 100달러 이하인 제품에 대해 약 20%에 해당하던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2천억원 규모인 국내 ‘역(逆)직구’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인터넷은 정보에 대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줌으로써 스마트한 소비자를 만들었다.

인터넷은 우릴 덜 사고하게 만든다!

세계적인 IT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는 인터넷이 우리들의 사고를 ‘알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2008년 애틀랜틱(Atlantic)지에 ‘구글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가?(Is Google Making Us Stupid?)’라는 기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검색엔진을 통한 인터넷서핑은 우리의 지식과 문화를 즉흥적이고 주관적이며, 단기적으

로 접근하게 만들어 깊이를 잃어버린 지식을 양산해낸다.” 이후 이는 ‘구글 효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인터넷은 우리 사고를 알게 만드는 걸까?’ 이게 사실이라면 앞서 언급한 스마트한 소비자와는 상치되는 의미가 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치매증후군’은 인터넷이 우리에게 주는 편의성에 대한 혹독한 대가다. 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편리성에 빠지고 결국은 정보에 대한 일시적 기억 상실을 겪게 된다는 증후군이다. 스마트폰에 연락처를 자동으로 입력해 두고, 발신자 이름이 착신과 함께 뜨게 함으로써 애써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졌다. 혹시라도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정말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된다. 기억을 담당하는 우리 뇌가 손상을 입게 되는 치매와는 달리 일시적인 기억장애라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인터넷 헤비유저인 20대부터 지속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평소 감당해야 할 의사결정에 따른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그냥 디지털기기에 의존하며, 우리 뇌는 그냥 빈둥빈둥 놀린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기를 꺼리게 만든다. 이쯤 되면 정작 스마트한 소비자라 할 수 있겠는가!

‘구글 효과’의 그 중심에는 인터넷의 멀티태스킹 능력이 있다. 뭐니 뭐니 해도 인터넷의 가장 뛰어난 특성은 멀티태스킹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신문이나 잡지와 달리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어 온라인 저작물의 목차나 색인 등 검색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바꿔놓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쉽고 빠른 검색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관심 밖의 정보나 문서는 건너뛰어 다니도록 만든다. 이로 인해 문서 내용에 대한 집중력은 약해지고 일시적인 상태에 머물며 내용의 분절화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 하이퍼링크는 너무도 쉽게 문서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하게 만듦으로써 문서에 집중하는 정도와 빠져드는 깊이의 정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 마디로 띄엄띄엄 골라 읽게 만든다는 얘기다.

인터넷 플랫폼은 하나의 스크린에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담을 수 있다. 문자, 오디오와 비디오 스트리밍, 다양한 광고들, 검색도구들은 물론 위젯(widget)과 같은 응용프로그램도 한 화면에 담겨있다. 이러한 플랫폼 구성은 우리들의 집중을 방해한다.

D.S. 니더하우저(D.S. Niederhauser) 연구팀은 하이퍼링크 사용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성한 후 논문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다. 하이퍼링크를 통해 페이지를 앞뒤로 클릭하며 읽은 사람들보다 논문을 선형적으로 읽은 피험자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유사하게 하이퍼링크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다. 연구자인 얼핑 주(Erping Zhu)는 “우리들은 하이퍼링크를 평가하고, 클릭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높은 집중력과 함께 뇌의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때문에 문서를 이해하는 데 사용할 인지적 자원이나 집중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독창적인 사고로 도전하기보다는 관습적인 사고와 해결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직접 아는 지식과 찾을 수 있는 지식은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뇌는 오프라인에서도 기억한다

종이책에 비해 전자책은 수많은 감각적 자극을 처리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검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정신적·인지적 자원의 소모가 커져 이해력과 기억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뇌는 인터넷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2008년 미국 UCLA 정신의학과 교수인 개리 스몰(Gary Small) 연구팀은 숙달된 인터넷 검색자와 초보자간 인터넷 사용에 따른 뇌의 변화여부를 관찰했다. 구글에서 검색하는 참가자의 뇌를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스캔한 결과, 숙달된 집단은 외측 전전두엽피질이 초보자에 비해 매우 강하게 활성화되었다. 이는 초보자와 달리 숙달된 인터넷 사용은 뇌에 특별한 신경통로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단지 5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후에는 초보자도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즉 초보자들에게 하루에 1시간씩 5일 동안 인터넷 검색을 하도록 한 후, 6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뇌를 스캔하자 숙련된 집단의 결과와 매우 비슷해졌다.

또 인터넷 검색과 종이책을 읽을 때 우리 뇌는 전혀 다른 활동을 보여준다. 종이책 구독자는 문제해결과 관련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은 반면, 인터넷 사용자는 매우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수많은 감각적 자극을 처리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검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정신적·인지적 자원의 소모가 커져서 결국에는 이해력과 기억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으로 인해 활성화된 뉴런들이 많을수록 좋다는, 즉 더 스마트해졌을 거

라는 추측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인터넷은 깊이가 얇은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더 발달된다. 뇌의 가소성(plasticity)을 말한다. 1990년대 후반 실시된 런던 시내 택시운전자들의 뇌를 살펴본 연구결과, 운전경력이 오래될수록 해마의 뒤쪽 공간이 커졌다. 이는 운전엔 필요한 공간지각 정보의 처리와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일반인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필요에 따라 기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의미다. 또 시각을 잃은 사람은 시각정보를 처리하던 뇌 부위가 청각 등 다른 감각정보를 처리하는 데 재활용된다. 만약 점자를 배울 경우, 시각피질은 촉각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이치다.

문제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생겨난 뇌의 가소성은 오프라인 생활 속에 그대로 남겨진다는 점이다. 즉 우리 뇌의 가소성을 고려해 볼 때, 온라인상에서의 습관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뇌의 시냅스의 작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이퍼링크를 통해 대충 훑어보고 빠르게 건너뛰거나, 다양한 멀티태스킹을 시도하는 데 사용된 신경회로는 더욱 확장되지만, 반면에 깊고 지속적인 집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인지적 사고영역은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깊이 있는 사고능력을 담당하는 시냅스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이다.

2009년 스탠포드대학 클리포드 나스(Clifford Nass) 교수팀은 활발하게 멀티태스킹을 하는 그룹일수록 관련이 없는 주변 자극에 의해 더욱 쉽게 산만해지며, 단기기억의 하나인 작업기억(working memory) 속의 정보에 대한 통제능력과 일에 대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발견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멀티태스킹을 할 때 쓰레기 같은 소리에만 관심을 기울이도록 뇌를 훈련시킨다”고 말한다. 이럴 경우 ‘우리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



게 된다.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 뇌는 우리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가.

인터넷은 소비심리도 바꾼다

현대인들에게 뉴스나 정보는 더 이상 가십거리가 아닌 중요한 ‘상품’이 된지 오래다. 더욱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확장은 뉴스 상품의 유통경로를 대하는 소비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뉴스나 정보를 어떤 미디어를 통해 습득하고 이용하는지 그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는 3,600만명으로 2014년 상반기에는 4,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견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위시한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대중화는 상품으로써의 ‘정보’ 습득의 패턴에 영향을 준다.

2013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하루 평균 334.3분을 미디어 이용에 할애하며, 여전히 TV가 176.9분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인터넷이 116.3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과는 달리 신문이나 잡지 등 종이매체에 대한 의존도는 급속히 낮아져 인터넷매체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매체 중에서도 PC 등 고정형 매체는 감소하는 반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이동형 매체의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모바일 기기 등 이동형 인터넷을 통한 신문기사 이용은 특히 젊은층에

서 눈에 띄는데, 20대의 85.6%, 30대의 79.2%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뉴스의 신속성은 높아졌지만 허위정보, 낚시성 뉴스의 범람, 차별 없는 정보습득이라는 맹점도 상존하고 있다. 손 안에서 모든 정보가 유통될 수 있어 의사결정방법 역시 예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환경은 광고나 판촉에 대한 변화도 이끌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TV나 신문,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분히 기업입장에서 잠재고객인 시청자나 구독자로 흐르는 일방향적 정보다. 하지만 인터넷매체가 아닌 인터넷환경으로서의 인터넷은 쌍방향적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상호작용적(interactive)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자동차의 ‘브릴리언트이즈(brilliant is)’ 캠페인이 있다. 전 세계 17만여 명의 사연으로 구성된 15분짜리 뮤직비디오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는 ‘브랜드드 엔터

테인먼트(branded entertainment)’ 형식으로 BMW가 2001년도에 1500만달러를 들여 제작한 단편영화가 그 시초다. 뮤직비디오이면서도 광고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작 광고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다. 철저하게 상업성을 숨김으로써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다가와서 콘텐츠를 보고 서로 공유하고 원하는 등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이 콘텐츠를 이용하여 UCC 공모 이벤트를 병행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광고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었다. 또 판매현장에서는 QR코드가 기존 광고나 판촉수단을 충분히 대체하게 된다. 상품의 사전노출에 따른 브랜드 인지보다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보제공이 소비자 지갑을 더 쉽게 열 수 있다.

인터넷은 정보 확장성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정보 집중성은 저해하기에 ‘스마트한 소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보로 저락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소비자 개개인의 몫인 것이다. ‘아는 것’ 과 ‘안다는 것’ 은 다르기 때문이다.

(건국대학교 범상규교수)





제28차 헤리티지 자띠루후르 토기 산지 탐방 안내

일시: 2015년 4월 27일(월) 오전 7시 30분

장소:Plerid토기산지

Jatiluhur
Purwakarta반동

회비: 회원 25만/비회원 35만루피아(가이드 및 점심 포함)
선착순 30명 (회비 송금 필요)

반동 근처 정말 넓고 아름다운 호수를 아십니까?
토바 호수 제 2탄입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를 눈에 담고 오시면 호수만큼 마음도 넓어집니다.
18세기부터 터를 잡고, 큰 화분이나 장식용 큰 도자기를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는 Plerid 지역
을 이번 기회에 탐방합니다!

신청 접수: sejinria@naver.com /카톡 아디 Rialeo
만디리 은행으로 송금한 후 메일이나 카톡, 밴드로 성함과 핸드폰 번호를 주세요.
Bank Mandiri Rim Yun Hi 126-00-06646268(메일이나 카톡으로 사진 송부요망)

탐방에 오시면 회원가입해 드려요!대신에 뺏지는 직접 수령 요망
헤리티지 도서관: 스나얀 플라자 내 소고열 센트랄 스나얀 1번 건물 17층 /
가입한 회비는 전액 문화지원 사업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전화: 021)572-5870 Ms. Nida (영어/인니어)

웹사이트 www.heritagejkt.org

주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안 섹션

헤리티지 국립박물관 정기투어 안내

알차고 재미있는 국립 박물관 한국어 투어를 공지합니다. 2015년 4월 셋째주 토요일 정기 무
료 투어를 실시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인도네시아 문화를 한국어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대상...인도네시아 문화, 역사 박물관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신청 가능

인원은 20명 선까지 제한

장소...Jl. Merdeka No.12 National Museum
모나스 광장 왼편

일시...2015년 4월 18일 (토)

9시 30분부터 한시간반 가량

인도웹 / PAGI 앱 / 헤리티지 밴드 로 신청 접수

*VIP 대상 스페셜 투어는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에서 종교의 위치는 대단하다. 거의 모든 사회 규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국이념을 나타내고 있는 헌법의 전문에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제1 건국이념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조직에 종교부 장관이 있고, 사법부에 종교법원이 독립된 법원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민의 주민등록증(KTP)에는 주민등록증 주인의 종교가 기재되어 있다. 무종교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은 단 하나도 없으며, 반드시 종교 난을 기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가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정 종교를 형식적이라도 가져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1965년 9월 30일 공산당이 일으켰던 쿠데타 진압 이래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신앙 혹은 무종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에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간주되고 공산주의자는 인간이 아닌 가축과 다를 바 없으니 가축처럼 도륙해도 괜찮다는 시각으로 중부 자바에서는 수십만의 인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살상됐으나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끔직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통계 수치상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민은 100%, 한 사

람도 빠짐없이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세계 제1의 신앙국가이다. Soekarno(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정부에서 인정했던 종교는 이슬람,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 및 유교 이상 6개 종교이었으나, 공산당 쿠데타를 진압하고 집권한 Soeharto(수하르토) 대통령의 Orde Baru(오르데 바루) 정권은 유교를 제외시켰다가, 1998년 5월 20일 Soeharto(수하르토) 대통령 하야 후 국민의 개혁 소망에 힘입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던 Gus Dur 대통령(본명은 Abdurrachman Wahid)이 유교를 다시 인정하여, 현재는 상기 6개 종교가 적법한 종교로 국가로부터 인정되어 있다. 정부의 통계상으로는 전체 국민의 87%가 이슬람 신자로 집계되어 있으며, 헌법에 정한 국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슬람 국가나 다를 바 없이 이슬람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이슬람이 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수년 전 특정 종교의 일부 지도자들이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1965년 법률 제1호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적이 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1965년 법률 제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종교계에 장기적으로 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실정법으로 금하고 있는 전도의 문이 제도적으로 열림으로써 종교 전도 활동이 활발해지고 전도 과정에서 서로 용납이 되지 않은 교리 간의 충돌이 예측치 않은 상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는 특정 종교인의 수가 많은 지역에 다른 종교의 건물(예배당, 성당, 사원 등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장소)을 건축하는 것도 제도상으로 쉽지 않다.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 헌법,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법률, 종교 전도에 관한 종교부 장관령, 종교건물 건축에 관한 종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 장관령 및 형법상의 종교 모독 범죄를 조명하여 인도네시아 종교법을 설명한다.

1. 건국이념에 나타나 있는 신앙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아직 건국되지 않고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1945년 당시 민족지도자 Soekarno를 중심으로 9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 인도네시아가 독립하게 되면 어떠한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결의하여 1945년 6월 22일 건국이념을 공포했다. 이를 Piagam Jakarta(삐아감 자카르따)이라고 하며 Piagam Jakarta(자카르따 헌장)에 나와 있는 5대 건국이념은 :

- i). Ketuhanan Yang Maha Esa(유일신 신앙),
- ii). Ke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인간애),
- iii). Persatuan Indonesia(통합 인도네시아),
- iv). 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perwakilan(대의정치),
- v). Keadilan sosial(사회 정의) 이다.

자카르따 헌장과 건국 직후 공포한 헌법 전문에 나타나 있는 5대 건국이념에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건국이념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2. 헌법에 나타나 있는 신앙의 자유 보장

신앙의 자유는 헌법 제29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1항은 인도네시아는 유일신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확인하고, 2항에서는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갖는 것과 각자의 종교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9조 해설에서는 인도네시아 민족은 유일신 신앙을 천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민이 자유의사로 아무 종교나 선택하여 믿고 종교 건물을 원하는 장소에 건축하고 종교 의식을 드리는데 제약 요인들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6대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으나, 소수의 토속 정령 신앙도 실정법으로 종교로 인정해주고 있다.

3.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법률

인도네시아는 실정법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금하고 있다. Soekarno 대통령 집권시인 1965년에 종교 모독 금지에 관한 1965년 법률 제1호를 제정 공포하여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다른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규정하여 중형을 요구하고 있다.

3.1.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맞지 않은 해석 혹은 활동을 하도록 다른 종교에 대하여 말하거나, 권유하거나 일반의 지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거나, 다른 종교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한다. 대중 앞에서란 2명 이상이 모이면 대중으로 간주되며 2명 이상일지라도 가족 간에 모임은 대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종교를 전도할 목적으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 모독 금지법의 핵심이다.

3.2.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는 종교 모독 행위를 경고하고 종교 모독 행위 중지를 요구

하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 장관의 공동 결정서를 보낸다.

3.3. 상술한 법률 명령을 어기는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종교부 장관, 검찰총장 및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이 해당 단체의 해산을 명하고 불법 단체로 규정한다.

3.4. 상술한 공동 경고장 및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자, 단체의 멤버 및/혹은 지도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

3.5. 형법에 제165a조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한다.

“대중 앞에서 고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감정을 표시하거나 행동을 한 자는 최장 5년의 징역에 처한다.

- a.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내용, 악용 혹은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한 자,
- b.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한 자” .

4. 종교 전도에 관한 법규

4.1. 종교 전도에 관한 종교부장관 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8년제70호

4.1.1. 전도는 국가 안정과 건국이념(Panca Sila)에 따라 종교 간의 상호 존중과 화목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하며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 4.1.1.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행위,
- 4.1.1.2. 특정 종교에 관심을 갖도록 돈, 옷, 음식, 음료, 약품 및 기타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 4.1.1.3. 특정 종교를 가진 지역 및 주택 지대에 팜플렛, 불레틴, 잡지, 책 등을 배포하는 행위,
- 4.1.1.4.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의 집에 적당히 핑계를 대고 출입하는 행위.

4.1.2. 상술한 전도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불화와 반목을 초래 시에는 해당 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4.1.3. 종교부 산하 모든 공무원은 본 장관령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감독해야 하며 수시로 현지 관계 기관 및 사회 지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4.2. 전도 절차 및 인도네시아의 종교 단체에 대한 외국 원조에 관한 종교부 장관 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9년 제11호

* 외국 원조란 인력, 물질, 재정, 교육 시설 및 다른 형태로 외국 정부, 외국 단체 혹은 외국인 개인이 인도네시아의 종교 지도, 개발 및 전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 종교 단체란 종교 지도, 개발 및/혹은 전도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 기관, 재단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

*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4.2.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자기 종교를 믿어보라고 그냥 권유하거나 물건, 돈, 옷, 음식, 음료, 치료, 약품 혹은 다른 형태의 물건을 주면서 권유하는 행위,

4.2.2.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팜플렛, 잡지, 불레틴, 책 혹은 다른 형태의 출판물을 주는 행위,

4.2.3.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일.

4.3. 외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종교 단체는 종교부의 추천을 받고 대외협력 조정위원회(PKK-TLN)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4.4.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 전문가 이용과 모든 형태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한다.

4.5. 주지사, 군수 및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종교 단체를 돕고 있는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

의 활동, 전도하는 종교 단체의 활동, 외국의 지원을 사용하는 일,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종교 및 사회 분야 교육 및 훈련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종교부 지방청의 직무 활동을 도와야 한다.

5. 종교 건물 건축에 관한 법규

종교 건물 건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단체장의 대리인 직무 시행 지침에 관한 종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2006년 제8호/제9호

5.1. 주 및 시/군에 민간단체로 종교인 화합 협의회(Forum Kerukunan Umat Beragama/FKUB)을 결성한다.

5.1.1. 주 FKUB의 임무

5.1.1.1. 주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자와 대화를 한다.

5.1.1.2.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망을 경청한다.

5.1.1.3.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5.1.1.4. 주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총화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5.1.2. 시/군 FKUB의 임무

5.1.2.1. 시/군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자와 대화를 한다.

5.1.2.2.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망을 경청한다.

5.1.2.3.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5.1.2.4. 시/군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통합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5.1.2.5. 종교 건물 건축 신청에 대하여 서면 추천을 한다.

5.1.3. FKUB의 구성

5.1.3.1. 주 FKUB의 인원은 최다 21명, 시/군 FKUB의 인원은 최다 17명으로 한다.

5.1.3.2. 주, 시/군 종교 인구 분포 비율로 FKUB 인원을 구성하며 주, 시/군 내에 있는 종교(6대 중

교에 한함)는 종교 당 최소 1(한)명의 FKUB 위원이 있어야 한다.

5.1.3.3. FKUB에 위원장 1(한)명, 부위원장 2(이)명, 서기 1(한)명 및 부서기 1(한)명을 두며, 호선 방법으로 선발한다.

5.2. FKUB의 직무 효율을 위해 주, 시/군에 FKUB 자문회를 구성한다.

5.2.1. FKUB 자문회의 임무

5.2.1.1.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를 위한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책 수립 지원

5.2.1.2.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와 관련하여 FKUB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지방 자치단체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5.2.2. 주 FKUB 자문회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5.2.2.1. 회장 : 부주지사

5.2.2.2. 부회장 : 종교부 지방청장

5.2.2.3. 서기 : 주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5.2.2.4. 회원 : 관련 기관장들

5.2.3. 시/군 FKUB 자문회원은 시장/군수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5.2.3.1. 회장 : 부시장/부군수

5.2.3.2. 부회장 :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

5.2.3.3. 서기 : 시/군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5.2.3.4. 회원 : 관련 기관장들

5.2.4. 주, 시/군 FKUB 자문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주지사 규정으로 정한다.

5.3. 종교 건물 건축에 관한 사항

5.3.1. 종교 건물 건축은 해당 동/리/촌 지역 주민의 종교 분포에 근거하여 실제 적으로 필요한 종교 건물 건축을 조건으로 하며, 종교 건물 건축이 해당 지역 주민 간의 화합, 안녕과 공공질서를 문란케해서는 안 되며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해당 동/리/촌 종교인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 시/군 혹은 주 경계선 주민의 분포를 참고로 한다.

5.3.2. 종교 건물은 행정 구비 요건 및 건축물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5.3.3. 종교 건물 건축은 상술한 행정 구비 요건과 기술 요건 이외에 다음의 특별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5.3.3.1. 종교 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 주민 최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 등록증을 지역 관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5.3.3.2. 종교 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육십)명의 동의서.

5.3.3.4.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서면 추천서

5.3.3.5. 시/군 FKUB의 서면 추천서

5.3.3.6. 종교 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 주민 최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 등록증을 지역 관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했으나 종교 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육십)명의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교 건물 건축 부지가 마련되도록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5.3.3.7. FKUB의 추천서는 FKUB 위원 간의 합의 후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5.3.4. 종교 건물 건축 허가 신청은 종교 건물 건축 위원회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90(구십)일 이내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4. 종교 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 건물로 임시 사용 허가

5.4.1. 종교 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 건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로 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5.4.2. 신청서 구비 요건

5.4.2.1. 신청서

5.4.2.2. 건물주인의 사용 동의서

5.4.2.3. 동/리장의 서면 추천서

5.4.2.4. 시/군 FKUB에 보고서

5.4.2.5.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에게 서면 보고서

5.4.3. 임시 사용허가서 발급 요건

5.4.3.1.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소견서

5.4.3.2. 시/군 FKUB의 소견서

5.4.4. 임시 사용허가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2(이)년이며 발급권한을 Camat(구청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 Propinsi(주) : 주지사(Gubernur)

– Kota(시)/Kabupaten(군) : 시장(Walikota/군수(Bupati)

– Kecamatan(구/면) : 구청장/면장(Camat)

– Kelurahan(동/리) : 동장/리장(Lurah)

* RW/Rukun Warga(통) : 통장(Ketua RW)

RT/Rukun Tetangga(반) : 반장(Ketua RT)

* 한국의 행정구역보다 1단계가 더 있다.



사람 꽃

시: 김은숙 / 그림: 이태복

엇금엇금 기어서
아잠아잠 걸어서
타박타박 옮겨놓아
사람 꽃이 되어
사람들 속에 피었죠.

꽃이 피면 향기 맑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일 지면 낙엽 되어
눈발 따라 날리며

아파서도 살고
좋아서도 살고
세상 따라 살고
사람 꽃이 되어
사람들과 살았죠.

사람 꽃이 되어
사람이어서 좋았고
사람과 함께여서
사람같이 행복했죠.

사람이라 참 행복합니다.

김은숙



싱가포르 한나프레스 신춘문예 수상
저서 수필집 <여왕> <사랑은 이혼이다>
현 한국 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 회원



THE 5TH INTERNATIONAL DRAWING CONTEST 제 5회 국제 사생 대회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석기) 주최하고 재인니 한인 미협이 주관하는 제 5회 국제사생대회가 4월 18일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소 : 싱가포르 국제학교(SIS) Bonavista Lebak Bulus Jakarta Selatan

참가연령 : 2000년생 ~ 2011년생

신청 기간 : 2015년 3월 9일~ 4월 13일

신청 방법 :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http://id.korean-culture.org>)
또는 각 학교에 배포된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송부

대회일 : 4월 18일 10:00~14:00

주제는 대회당일 발표

수상자 발표 : 4월 22일

수상작품 전시회 : 5월 2일 ~ 5월 17일,
한국문화원 다목적홀



한인회 무료 법률 상담 안내

1. 상담자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리사

HP : 0816 1911 245

Tel : (021) 5296 0643

E-Mail : yisngmin@centrin.net.id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리아센터 202호

KOREA CENTER BUILDING LT.2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2. 상담자 : 이 소 왕 변호사

HP : 0816 846 631

Tel : (021) 520 7153

E-Mail : doowang@cbn.net.id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1701호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3. 상담자 : 김 민 수 변호사

HP : 0816 794 257

Tel : (021) 797 6254

E-Mail : ms@paklawfirm.com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린도 사무실 5층

WISMA KORINDO LT. 5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상담 에티켓>

상담업무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변호사에게 사전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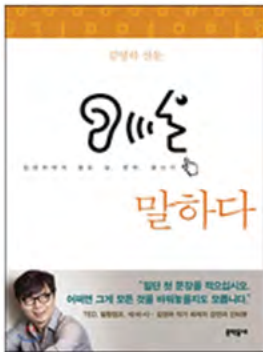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인비저블 INVISIBLES

데이비드 즈와이그 저/박슬라 역 | 민음인

모든 산업 분야에는 수백만 명의 인비저블들이 숨어 있다. 다방면에서 슈퍼스타와 천재가 난무하는 자기 과시와 명성의 시대에, 그들은 무명으로 남으면서도 일과 삶을 즐긴다. 언론인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즈와이그는 『인비저블』을 통해 현대의 지배적인 풍조를 거스르는 조용한 영웅들을 통해 일과 성공의 참의미를 재고찰한다. 그가 정의하는 인비저블은 외부적 찬사나 보상에 별 관심이 없으나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며 일을 통해 깊은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말하다 : 김영하에게 듣는 삶, 문학, 글쓰기

김영하 저 | 문학동네

『보다』 - 『말하다』 - 『읽다』 삼부작 중 두번째로 선보이는 산문집 『말하다』는 작가 김영하가 데뷔 이후 지금까지 해온 인터뷰와 강연, 대담을 완전히 해체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묶은 책이다. 일반적인 대담집 형식에서 벗어나 작가가 직접 인터뷰와 강연을 해체하고 주제별로 갈무리하여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탈바꿈시킨 이번 책에서는 글쓰기를 중심으로 문학과 예술 등 작가 김영하를 구성하는 문화 전반에 이르는 그의 생각들이, 때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때론 작가 특유의 위트와 재치가 맞물리며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잠수네 초등 1, 2학년 공부법 : 영어 · 수학 · 국어

이신애 저 | 알에이치코리아(RHK)

잠수네 공부법을 학년별로 구체적인 방법론에 담아 출간하는 두 번째 책으로, 이번에는 영어는 물론, 수학과 국어를 함께 정리했다. 특히, 초등 입학 앞둔 학부모들에게 당장의 시험성적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배로서의 든든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모국어 습득 방식과 같은 영어 학습법, 퍼즐 및 보드게임으로 재미있게 시작하는 교과 수학, 1년 365일 읽을 책 목록을 알려주는 독서플랜을 통해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공부법을 제안한다.

프로테우스 PROTEUS: 토벨라의 심장 양장

디온 메이어 저/이승재 역 | arte(아르테)

디온 메이어의 작품들은 현실성과 사실성을 담보로 한 유려한 문장과 긴장감 넘치는 구성, 흥미로운 스토리라인으로 전 세계 28개국에 번역 출간되며 국제적인 베스트셀러로 우뚝 섰다. 30대 초반부터 써왔던 단편들은 남아공에서 영화화되었고, 『오리온』과 『트란지토』는 각각 2006년과 2008년에 텔레비전 시리즈로 드라마화되었으며, 베니 그리설 시리즈 중 2권인 『13시간』은 2010년 인터내셔널 영화사와 관련 계약을 계약했다. 출간하는 소설들마다 영화화가 거론될 만큼 상업적으로 성공한 디온 메이어의 작품들은 문학적으로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정창권 저 | 푸른역사

평소 조선인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 세상에 알려오는 일에 천착해 온 저자 정창권 교수(고려대학교)가 이번엔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부부관계가 돈독했던 열 쌍의 사례를 통해 그에 조선시대 부부의 ‘개는’ 모습을 자세하게 살폈다. 조선 중기의 이황, 유희춘, 원이 엄마 부부, 조선 후기의 이광사, 박지원, 서유본, 심노승, 김삼의당, 강정일당, 김정희 부부 등의 다양한 일화들을 토대로 이들과의 인터뷰를 시도해 재미있고 생생하게 그들의 부부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경제학은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가

모세 애들러 저/이주만 역 | 카시오페이아

이 책은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학의 두 가지 축 ‘경제 효율성’과 ‘임금이론’을 통해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실전경제학 입문서이다. 컬럼비아대 교수인 저자는 1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간이 창조한 경제 개념들이 모든 사람의 복지를 염려하던 평등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부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편향된 분석 도구로 전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류 경제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소득 분배와 소득 평등 이론을 지지하면서 어떻게 경제 효율성 개념을 왜곡하고 또 부와 소득의 집중현상을 초래했는지 보통의 교육을 받은 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쾌하게 설명한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2015년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납부명단]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1	승은호	2015	300,000	
2	신기엽	2015	300,000	
3	조규철	2015	300,000	
4	김재민	2015	300,000	
5	최양기	2015	300,000	
6	홍석영	2015	300,000	
7	최석일	2015	300,000	
8	김양임	2015	300,000	
총 금액			Rp2,400,000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보내실 곳>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5949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Creative Director
President Director
Tae-Joong. Rhee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 +62. 21. 7919. 2006(Rep.) F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M 0812. 1011. 1000 / 0822. 2110. 2922 E jasoncpu@gmail.com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
주거공간
↓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나 **한식당**
KANA 가나 RESTOLOUNGE

EVENT 대환영

- 돌잔치, 회식, 신년회, 송년회
- 도시락 쿵서비스, 캐터링

토요일/일요일 20%특별할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담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옥)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승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군)	0811 850 212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4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니지회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www.doowang.net | E-mail: doowang@cbn.net.id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름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췌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짜)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아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몰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	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140	1245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끌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BBQ(끌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163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1066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143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8515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80591625	
세명 하숙	08521757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13361111	
소망 하숙	08131724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게스트하우스	0815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964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6074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100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181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1024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127887	
풀하우스	0818901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795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8822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짜)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 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 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 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 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 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 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따 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Haesley Nine Bridge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 다른 행동 ; 다른 결과 ; 앞서는 남다름!!

TtU는 마인드 행동양식, 표현방식 등 기존의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이노메이트의 핵심입니다.!



The reception area:the sailing-boat-like reception desk visualises the value-thinking IBM lives by.



KBS Media Center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Creative human space design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 Rep. 021. 7919. 2006 / IP. 070. 4644. 2280 / M 0812. 1011. 1000

이노메이트의 수익금의 일부는 J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고객의 명의로 장학금으로 기부 예정입니다.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